

2019년 하반기 교육활동자료집

# 교육언저리잡지

발행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대표전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편집·디자인 플랫폼

2019년 하반기 교육활동자료집  
교육언저리잡지



서울특별시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01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대표전화 02-2051-8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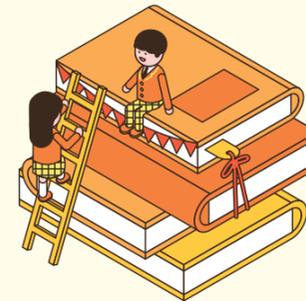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ISSN 2672-1716 비매품

# CONTENTS

## greeting

- 0 언저리의 주저리
- 2 여는 글



01

## 배움이 있는 삶

- 6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퍼실리테이션**
- 10 퍼실리테이션 이해하기
- 12 이룸학교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과 퍼실리테이션
- 14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을 때
- 16 **학생수기**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단단해진 나  
퍼실리테이션의 유용성
- 18 **느린학습자**
- 18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아이접근법
- 22 실무자들이 더욱 궁금해서 물어보는 느린학습자 Q&A
- 24 **체인지메이커**
-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체인지메이커
- 26 **학생작품**
- 하늘이 준 깨달음

## 02 만남이 있는 삶



### 다양한 교육 현장 이야기

- 32 공교육? 위탁교육? 우리는 이제 함께 한다(경기도 교사 **이창형**)
- 34 만나라 이웃나라를 탐구한다! 위탁형대안학교 '청소년희망학교'
- 38 징검다리 거점공간 '꿈꾸는 다락방'
- 41 나의 학교생활(구회진)

03

## 재미가 있는 삶



### 현장스케치

- 44 나누는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시민 - 꿈에-이룸학교 연탄봉사
- 46 **드림시네마** 'JUN YOUNG 웰치스'
- 48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이룸학교의 동아리 이야기
- 51 2019년 교육팀 AWARDS!
- 54 **살짝엿보기**
- 우리아이들! 학교에서 도대체 뭐 하나요? - 쉬는시간편
- 56 **그리고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2019년 드림발표회
- 60 **2019 교육팀 하반기 결산** 우리들의 골든메모리즈
- 64 **학생작품** 류하늘

2019년 드림센터 교육팀  
교육활동자료집

## 교육언저리잡지

글쓴이 드림센터 교육팀, 외부집필진  
기획 박경아, 이민지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우경민  
발행처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전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  
디자인 플랫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장  
꿈에이룸학교 교장

우경민 신부

## 아름답고 멋진 친구들

2019년 한 해가 바람에 스치듯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팀 선생님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을 좋아하게 만들까 고민 하면서, 나름대로 매일 그들의 교실들을 찾아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밥도 함께 먹고, 야외활동도 함께 하면서 친해지려 노력하였습니다. 쉽게 말을 거는 친구들도 있었고, 몇 번이나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알바에 몰두하며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학기를 보내고 선생님들과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 사랑받는 학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2학기도 그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에 거름이 되었나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준비한 드림발표회에서 자신들의 끼를 멋지게 발산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감동되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참 아름답고 멋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 교육언저리 잡지를 만들면서 우리 학교선생님들의 마음과 열정,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짐을 느낍니다.



# 배움이 있는 삶



##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션 이해하기  
이룸학교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과 퍼실리테이션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을 때  
퍼실리테이션의 유용성

### 학생수기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단단해진 나

퍼실리테이션의 유용성

### 느린학습자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아이접근법  
실무자들이 더욱 궁금해서 물어보는 느린학습자 Q&A

### 체인지메이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체인지메이커

### 학생작품

하늘이 준 깨달음

# 돈보스코의 예방 교육에 대한 말씀<sup>1)</sup>

많은 경우에 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집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예방교육”<sup>2)</sup>이라 불리는 것에 관한 생각들을 말로나 글로 표현해 주기를 요청받아 왔다. 시간부족으로 지금까지 나는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규칙들을 재정리하고 있기에, 이와 더불어 예방교육에 대한 짧은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청소년 교육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예방교육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고, 왜 그것이 선호되는 것이 좋은가, 예방교육 시스템의 적용과 그 이익들, 벌에 대해, 추천할 만한 다른 것들 등을 살펴볼 것이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장  
꿈에이룸학교 교장

우경민 신부

**01**  
예방교육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고, 왜 그것이 선호되는 것이 좋은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여러 시대에 사용되던 두 개의 교육 시스템들이 있다. 하나는 예방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압적인 것이다. 억압적인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규칙을 정해 주고 이를 알도록 교육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규칙들을 어기는지를 감시하며, 어긴 학생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벌을 주게 된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교육자들의 말씀

들과 표정들은 항상 엄격하거나, 위협적인 것이어야 하기에, 그들은 대상자들과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교육자는 자신의 권위에 무게를 주기 위해, 그의 대상자들에게 거의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다만 벌이나 경고의 문제일 때에만 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나타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보다 쉽고 덜 귀찮으며, 특별히 군대와 같은 조직 안에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성인이나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법과 규칙들이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교육 시스템은 아주 다르다. 이것 또한 학생들에게 규칙들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보살피며, 사랑스런 아버지처럼 그들과 대화하고 모든 순간에 이끌어 주며, 사랑이 넘치는 태도로 충고와 교정을 제공한다. 즉 예방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1) 이 글은 Paul Avallone, Reason, Religion and Kindness(New York: Don Bosco Publications, 1977.)에서 발췌 번역됨  
2) ‘예방교육’을 이루는 3요소는 ‘이성, 종교, 사랑’이지만, 여기서는 ‘종교’ 부분에 대한 것을 가톨릭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치교육’으로 대치하여 설명한다. 또한 2019년 교육언저리잡지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예방교육시스템이라 하는 이유는 예방교육이 한 개인의 교육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의 교육철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전적으로 이성과 사랑과 가치교육에 근거한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처벌을 배제하며 최소한의 징벌도 피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선호된다:

- 1 이 방법으로 충고 받는 학생은 자신이 범한 잘못들 때문에 의기소침한 채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또한 그가 받는 교정이나 벌에 대해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친절한 충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충고는 그 학생의 이성에 호소하게 되어 그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그 학생은 처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수용하게 된다.
- 2 이 시스템이 우선성을 갖는 이유는 학생들의 생각이 짧음 안에서 보여진다. 그들은 한순간 규칙들을 잊어버리고, 규칙들이 위협하고 있는 벌들을 잊어버린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종종 규칙을 어기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3 억압적인 시스템은 일순간 무질서를 멈추게 할 것이지만, 그 학생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경험이 말해 주듯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받았던 벌을 잊지 못한다. 그들은 종종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그 벌에 대한 기억은 계속 남아 있게 되며,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벌은 잊혀 지지 않지만, 그들의 교육자들로부터 받은 벌들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잊혀 지지 않게 된다.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받았던 징벌들에 대해 나중에 복수를 가했던 예들이 있다. 반대로 예방적 시스템은 학생들을 친구로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충고해 주고, 자신들을 선으로 이끌며, 문제들로부터 구해주며 벌이나 불명예로부터 구제해 주는 교육자들을 은인들로 여기게 된다.
- 4 예방교육 시스템은 교육자가 항상 마음의 언어로 이야기하기에 학생들이 충고를 잘 받아들일게 된다. 학생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교육자는 나중에 그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예방교육 시스템은 억압적인 시스템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

**02**  
예방교육 시스템의 적용

이 시스템의 실천은 전적으로 신약성서의 성 바오로의 말씀에 근거한다: “사랑은 인내하고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희망하며 참아 냅니다.(1코린 13, 4.7.)” 이성

과 사랑과 가치교육은 교육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수단들로서, 학생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교육자들이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다.

교육자는 그의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며,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어떤 일에도 종사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시간에 보조 교육자에 의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결코 따로 남겨지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가능한 한, 교육자들은 보조 교육자들에 의해서라도 학생들이 갈 장소에 미리 가서 있도록 하고, 다른 교육자가 오기 전까지 그들과 남아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없는 상태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교육자들과 보조 교육자들은 관계적 윤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우정이나 모든 종류의 애정을 전염병처럼 피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교육 기관을 위협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달리고 뛰어 놀게 하라. 체육과 음악, 암송, 활동, 걷기 등은 규칙을 증진시키는 수단이요, 도덕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놀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그들 속에서의 대화 내용은 책망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 안에 나쁜 책들을 가져오거나, 위험한 친구들이 있거나, 비적절한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도록 큰 관

심을 두어야 한다. 좋은 문지기는 교육의 집을 위한 보물인 것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 교육 책임자는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에 대해 충고나 조언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몇 마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sup>3)</sup> 낮 동안 일어난 학교 안에서의 일이나 밖에서의 일에 대해 약간의 도덕적 숙고를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교육이 있어서 성공의 열쇠요, 좋은 행동과 도덕을 위한 열쇠인 것이다.

### 03 예방교육 시스템의 이익들

어떤 이들은 이 시스템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 그것은 보다 쉬운 것이며 더 만족스럽고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교육자들에게 그것은 확실히 약간의 어려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만일 교육자들이 열성적으로 교육에 자신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교육자란 전적으로 자신의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에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들의 도덕적이고 지적인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하여 피로를 인내해야 한다. 이미 언급된 것 외에 다음의 것들을 덧붙인다:

- 1 학생들은 교육자들에 대해 존경심을 보이고, 기쁨으로 교육자들의 관심을 기억할 것이며, 교육자들을 어머니나 친구처럼 여길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가족들의 기쁨이 되고 유용한 시민이 되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 2 처음 학교에 받아들여 질 때의 청소년의 성격이나 기질, 도덕적 상태가 어떻든지, 그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더 나빠지

지 않을 확신과 항상 더욱 진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부모의 질책의 대상이었고, 더 이상 교정될 수 없다고 포기되었을 때, 이 예방교육 시스템에 의해 교육받음으로써 자신의 길에서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존중받는 위치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며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3 만일 잘못된 습관이 배인 청소년이 그 학교에 들어온다면, 그는 더 이상 다른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자의 지속적인 헌존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위한 시간과 장소와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에 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04 벌에 대해

벌을 가할 때 어떤 규칙들이 따라야 하는가? 가능하다면 결코 벌을 가하지 말고, 그럼에도 그것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에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

- 1 교육자는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가 이것에 성공할 때, 그가 어떤 친절함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벌이 되는데, 이는 학생에게 다시 경쟁심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며, 낙담하지 않게 만든다.
- 2 청소년에게 있어서 벌은 벌로서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책망하는 눈초리는 주먹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잘한 일에 대한 칭찬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질책은 그들 안에서 상과 벌이 된다.
- 3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과 벌은 공공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나 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나와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명함과 인내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도록 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성과 사랑과 가치교육의 도움에 의해 가능하다.
- 4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을 때리거나, 고통스럽게 꾸게 만들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다른 비슷한 벌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야 한다. 왜냐하면 법이 그것들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벌들은 학생들을 매우 화가 나게 만들고 교육자에 대한 명예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 5 교육 책임자는 상과 벌을 포함하고 있는 규칙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을 몰랐다는 변명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이 예방교육 시스템이 우리 교육자들에서 수행된다면, 막대기나 육체적인 체벌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청소년들 속에 40년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느 종류의 벌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나는 예방교육 시스템을 통해 규칙이 요구하는 것을 얻었을 뿐 아니라, 좋은 결과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로부터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다.

### 05 추천할 만한 다른 것들

모든 교육자는 청소년들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사랑받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가 말로써 이것을 분명하게 만든다면 이 목적을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더욱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모든 관심과 걱정이 그의 청소년들의 영원한 행복과 복지를 향해 있음으로 인해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교육자는 말수는 적게 행동은 빨리 하는 사람인 것이 좋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학생들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항상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주의를 두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표현들과 말과 행동들을 수정하거나 교정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즉시 다음의 특징들 중의 하나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모범적인, 평범한, 제멋대로인. 우리에게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지 없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다른 개성들을 가진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

는지를 공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먼저 본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지닌 청소년에게는, 규칙들이 설명되고 생활습관들을 충고한다면, 일반적인 관찰로 충분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다소 번덕과 무관심의 경향이 있다. 이들은 짧고, 잦은 훈계와 충고를 필요로 한다. 작은 보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선을 행하도록 격려 받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심과 걱정은 마지막 그룹인 제멋대로인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향해져야 한다.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15명 중의 하나 꼴인 셈이다. 그들은 개인적인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담당자들은 그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좋고, 자신을 친구로서 여겨지도록 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짧은 모범들과 격언들과 예화들을 말해 줄 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청소년들은 교육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뢰심을 잃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교육자들은 학생들 사이에 들어갈 때에, 즉시 이들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 중의 하나라도 없음을 알게 된다면, 마치 그에게 말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즉시 그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비난이나 충고나 교정이 이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할 때마다, 그것이 다른 청소년들 앞에서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을 교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실들과 예화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앞에 쓴 내용들은 인내와 부지런함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들이 없이 모든 것은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3) 돈보스코의 유명한 '저녁말씀'(Buona notte. 이탈리아어 밤인사). 돈보스코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교훈적인 깃속말에서 유래됨.

## 퍼실리테이션 이해하기

드림센터 교육팀은 교사들이 퍼실리테이션을 직접 배워서 공동체회의, 교육과정 만들기 등 학생과 평등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성원의 변화와 잘 하고있나?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퍼실리테이션 보수교육! 퍼실리테이션이 무엇이길래 이들은 퇴근시간을 넘긴 시간까지 공부하는 걸까? 알아보자.



### 1. 퍼실리테이션이란?

퍼실리테이션은 그룹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 2. 어원

퍼실리테이션의 우리말 번역어는 '촉진'. 촉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 3. 철학

- ①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명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
- ② 사람들은 자신이 참여한 아이디어나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헌신적으로 임한다.
- ③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이 부여되면 진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④ 모든 사람의 의견은 지위,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중요하다.
- ⑤ 도구와 훈련이 주어진다면, 팀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성숙한 행동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 ⑥ 퍼실리테이션의 프로세스가 잘 설계되고, 계획대로 적용된다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 4. 미팅 퍼실리테이터와 러닝퍼실리테이터 뭐가 다른걸까?

역할	미팅퍼실리테이터	러닝퍼실리테이터
내용	참여와 협력적 의사 결정을 위한 것	변화와 역량 향상을 위한 것
태도	중립성	진실성
초점	프로세스 (답을 제시하지 않음)	프로세스 + 콘텐츠 (답을 제시함)
효과	의사결정	변화, 역량향상
말하기 vs 듣기	20% vs 80%	50% vs 50%

동시에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되 조직원들 스스로 가능성과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이다. 퍼실리테이티브 리더들은 대개 퍼실리테이션과 리더(이끄는 것)사이의 내재적인 역동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직에 퍼실리테이터를 자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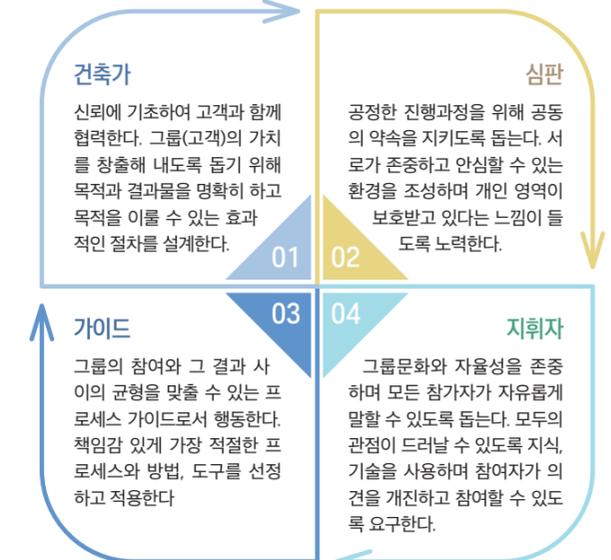
- ④ 퍼실리테이티브 그룹(facilitative group)은 퍼실리테이티브한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역기능적인 부분이 아주 적고 함께 일하는 것을 아주 잘하며, 새로운 이가 들어오기 쉽고, 다른 그룹 혹은 다른 개인들과 협업하기를 잘한다.

\*출처 : 마이클 도일, "how to make meetings work"

### 5. 적용

- ① 퍼실리테이티브한 사람(facilitative individual)은 함께 일하기 수월한 사람, 팀 플레이어, 그룹 및 개인적 역동을 알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들은 동료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잘 돕는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협력적 문제 해결, 기획, 합의 형성 그리고 갈등 해결과 같은 대인 스킬에 대한 지식과 실행 역량이 있는 자들이다.
- ②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그룹과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협업하게 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어 일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들은 회의 중 '내용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즉, 한쪽 편을 듣거나 특정 관점을 표현 혹은 옹호하지 않으며, 그룹이 일을 완수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포괄적이면서 열린 절차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퍼실리테이터는 또한 학습과 다이얼로그에 대한 가이드로서, 그룹이 가정이나 믿음, 가치, 시스템 절차 그리고 맥락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퍼실리테이티브 리더(facilitative leader)는 그룹과 조직의 역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이 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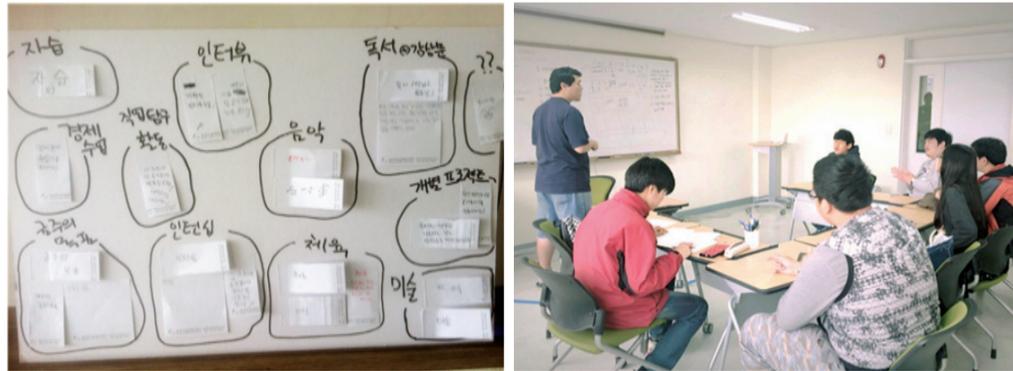
참고 : "퍼실리테이터의 가치선언과 윤리강령", 국제퍼실리테이터협회(2004)

## 이룸학교를 통해 바라본 청소년과 퍼실리테이션

**배운 것은 써 먹어야 제맛!**

이룸학교는 5년 전부터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며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을 만들며 함께 성장한 도시형대안.

시작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의 눈으로 그들의 성장을 지켜본 퍼실리테이터 정민규 선생님은 어떻게 느낄지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는 정민규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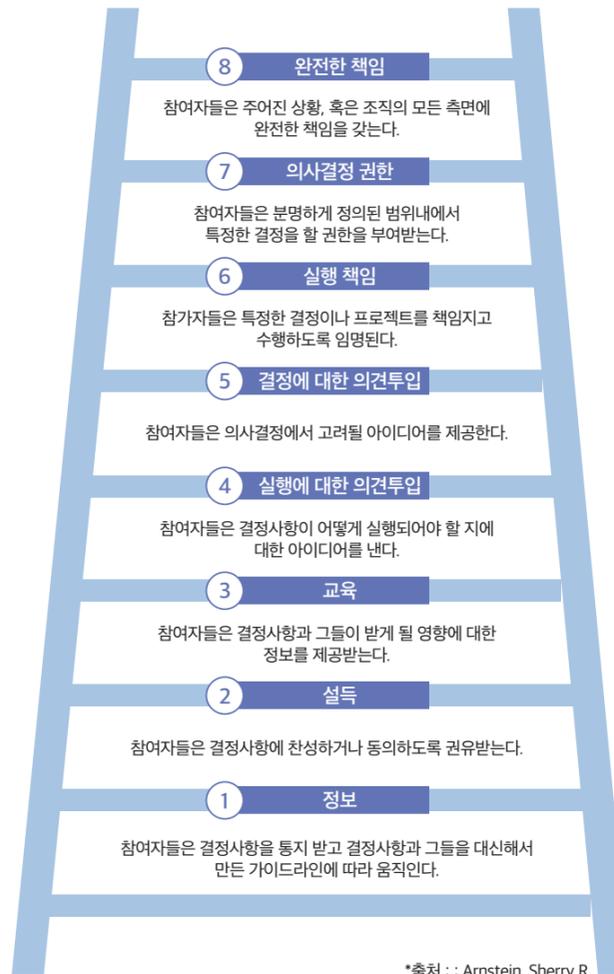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촉진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해내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룸학교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룸학교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해보았던 새로운 도전의 이야기 한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수업시간표를 만드는 회의모습입니다. "이룸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교사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시간표는 교사가 만들고 학생들은 결정된 시간표를 따라야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과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배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100% 학생들의 의견으로만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견도 반영이 됩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말하도록 돕고 그 의견들이 모여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합의가 되도록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단기간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명의 교사가 결정을 내린다면 쉽고 빠를 수는 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돕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필요할까? 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고민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꿈꾸는 일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하고 청소년들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만들고 싶은 것을 학교나 교사, 어른들이 결정을 하고 청소년들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채 결정에 따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깊은 이유는 청소년들을 무언가 가르쳐주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청소년들이 결정에 참여하여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수업과 학교를 만들어간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가능한 일들을 상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8단계의 참여의 수준을 보여주는 표이고 '참여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출처 : Arnstein, Sherry R

퍼실리테이션을 쉽게 말하면 '참여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돕고 그들 스스로가 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8단계, 완전한 책임'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가는 상황이라면 먼저 학생들 스스로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여행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숙소, 차량 등을 예약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이 직접 여행과정을 모두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때 지원을 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참여의 수준을 만들어가려면 일단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결정을 내리는 회의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스스로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룸학교에서는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참여를 존중하고 스스로가 해내는 일들을 늘려가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혼자서 결정하고 싶은, 그리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참아내었던 학생과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함께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점차 키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청소년들과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소통하는 일은 왜 필요할까요? 삶의 과정은 바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진짜 힘을 키우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퍼실리테이션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아래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음으로써 자발성과 주도성을 키워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받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격의 존중이 있을 때 비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배우고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배움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하면 대화를 통해 사고가 확장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

##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을 때

이룸학교는 2015년 학교의 문을 처음 열면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회의 방법을 교사들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이룸학교의 퍼실리테이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교육팀 주임  
유선숙

- 2015년 학교를 함께 만들기
- 2016년 끝나지 않는 소통
- 2017년 효율성을 찾아서
- 2018년 학교를 함께 만들기
- 2019년 회의를 더 잘 할 수는 없을까?

이룸학교가 문을 연 2015년,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의 방향과 틀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해 여름 학생들과 2박 3일 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라는 방향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되었지만 학교의 교육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회의가 이어져서 뭐 하나를 시작하려면 한나절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캠프도 가야하고 수업도 해야 하는데 진행이 되지 않아 속이 답답해서 뒤집어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참을성을 많이 기른 것 같네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작년의 회의에 지쳐가던 학생과 교사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어느 정도는 의견 취합을 통해 교사가 사전 구상을 하고 이를 동의하면 구체적인 구상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시간 절약도 되고 진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공동체회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아쉬움도 커져갔습니다. 형식이 주를 이루고 내용이 점점 빈약해지는 느낌이 점점 커졌고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공동체가 소통의 중요성을 모두 아는 것 같았지만 의미 없는 외침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학생들은 회의 시간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회의 시간인 월요일 아침 출석율은 점점 낮아지고 길게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지만 이번에는 교사들도 기운이 빠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배운 걸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과는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연도를 돌아보니 우리가 조금씩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퍼실리테이션이란 교육이란 대상이 있다면 대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어 방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매년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룸학교 교사들은 거의 매년 퍼실리테이션 혹은 소통 방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조금씩이지만 배운 것들을 교육 현장에 대입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항상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점이 지금까지 학교를 유지해온 중요한 요소이며 학교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의 구성원은 서로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에 불편해하고 어떨때는 이견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가 왜 서로 존중해야 하는지를.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나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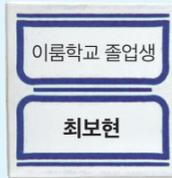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물론 팔과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룸학교는 계속 이야기하고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소통할 것입니다. 매우 끈질기게.

“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자, 그 위대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견을 드러낼 때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에 강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중에서 파커 J. 파머(교육운동가) -



##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단단해진 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적에 토론수업과 회의시간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늘 할 말이 많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올랐으며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기에 선생님들은 나를 참 좋아해 주셨다. '보현아, 너가 말을 많이 해주는 덕분에 선생님이 수업하기가 참 편하다'라는 칭찬도 들어 봤다. 중학생이 된 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 그 회의를 주도하고 싶어서 반장도 스스로 맡아서 했다. 그 정도로 회의는 나에게 가장 쉬웠고 재밌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름 학교에 입학한 이후,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2시간짜리 '공동체 회의'는 나에게 역경과 고난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름 학교를 졸업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공동체 회의의 약속이 있다.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가치 있다.' 이 문장이 가진 힘은 다른 열 가지 규칙보다 대단했다. 내가 아무리 근사한 의견(물론 내 생각이지만)을 제시해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했고, 그 어떤 의견 하나 버려지는 일이 없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공정하게 결정하는 투표를 통해 다수결이 나왔음에도 처음부터 회의 내용을 다시 읽은 적도 있었다.

이때까지 나는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빠른 해답 찾기'라고만 생각 했기에 이러한 과정들은 낯설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름 학교의 공동체 회의는 속도나 결과물보다는, 구성원이 여러 의견을 내고 그것을 추합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수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매개체는 포스트잇이었다. 아마 한 명씩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면 절대 입을 떼지 않는 아이들 속에서 나는 답답해하며 시간만 채워 짜증을 내거나 재촉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스트잇을 무한정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마음껏 쓰게 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됐다. 브레인스토밍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다. '절대로 비판하지 않기.' 특식 메뉴를 정할 때 20만원짜리 랍스터 무한리필 집에 가자고 써서 내도 채택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카테고리 별로 묶은 뒤 의견을 분류한 다음 투표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낸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웠다.

나름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음에도 공동체 회의에 참여한 이후 처음 몇 번은 내가 낸 의견을 친구들이 반대하거나 투표수가 적으면 당황도 하고 황당도 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내 의견에 다른 친구들이 반박해주기를 은근 기대하기도 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신선한 충격과 나오는 전혀 다른 시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재밌어진 것이다.

이 점은 내가 이름 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많은 배움 중 가장 가치 있는 부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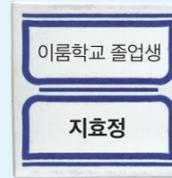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멀리 돌아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 비교적 정하기 쉬운 캠프 계획부터 한 학기를 몽땅 투자했던 규칙 정하기 회의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게만 포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 크고 작은 마찰들로 선생님과 개인 면담도 있었다. 졸업하고 돌아보니 전부 소중한게 보이는 것이다.

이름 학교를 다닐 때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조별 과제가 주어지면 팀별로 회의를 하게 될 때가 있다.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된 대학 생활 속에서 가끔 이름 학교의 공동체 회의가 떠오른다. 몇 주 전에 우리 과에서 첫 조별 과제가 시작되었는데 벌써부터 분열 생기고 빈정대해서 화난 애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포스트잇 과 이젤을 갖다 놓고 평등한 위치에 둘러앉아 회의를 해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나는 그저 조원들의 의견을 더 발산해보라고 독려한 뒤 그 과정에서 기각하지 않고 최대한 다 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 요즘 선생님들께서 왜 그렇게 공동체 회의에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자하셨는지 점점 더 깨달으며 살고 있는 중이다.



## 퍼실리테이션의 유용성



여러 해 이름학교에서 배운 것 중 단연 현재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꼽으라면 각종 회의 등으로 습득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이다. 나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다 보니 자주 하게 되는 팀 프로젝트 때, 동아리 회의 때, 또 교육 봉사 시 계획한 커리큘럼에 토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이들 의견을 모으고 정리할 때 사용한다. 시시콜콜하게는 친구나 가족과 저녁 메뉴 혹은 여행 계획을 정할 때에도 사용했다. 일단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의 강점이다.

혹자는 이런 퍼실리테이션에 대해 "모든 의견을 모으면, 빠르게 결과가 필요한 일에서 논의만 너무 길어지지 않은가" 혹은 "물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이상적이나 그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사용해 본 경험상 이것은 선부른 걱정에 불과하다. 저도 이름학교 시절 지지부 진한 회의를 워낙 싫어했던지라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교사들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도입하고 난 이후로는 회의가 훨씬 빠르면서, 모두의 의견을 모으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기도 쉬웠으며 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납득도 수월했다.

두루뭉술하게 다가올지도 모르니 간단하게 제가 진행했던 팀 프로젝트 회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초면인 상태에서, 정해진 방향이 없는 프로젝트 초반에는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 대뜸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의견을 모으게 되면 개별적이고 방향성이 다른 의견들을 받게 된다. 이런 의견들을 한 데 모아 봐도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오리무중이 되고 만다. 모인 의견 중 하나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의견을 다시 모으는 것도 상기 내용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과제 관련하여 떠오르는 모든 것을 말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이때 나오는 의견은 맞출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된다. 그 자체로는 방향성은 찾기 힘들고 파편적인 의견들이지만, 의견을 낸 당사자의 니즈가 비슷한 것끼리 묶다 보면 얼추 몇 가지의 주제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두의 의견이 알기설기 엮인 몇 가지 주제문이 나타났을 때 투표를 한다. 요즘은 거수 등이 아니라 카카오톡 등으로 손쉽게 익명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초면인 상태에서 이런 투표를 진행하기도 쉽고, 모든 이의 의견이 조금씩 섞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반발도 적은 편이다.

주제문이 이렇게 정해지면 세부 내용도 주제문을 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주제문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브레인스토밍 한다. 다만, 주제 선정과는 좀 다르게 그룹핑으로 나타난 몇 가지 소주제문은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남은 것을 내용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소주제문까지 정해지면 나머지 회의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각 소주제문별로 자료 조사할 양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조사에 대한 역할 분배도 빠르고, 원한다면 보고서를 관심 있는 소주제문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말로 설명하자니 길게 느껴지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리벙벙하게 허비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결과물은 더 정교하고 섬세해진다. 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보다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라는 질문은 중립적이고 공적인 질문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자기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다. 최대한 소외되는 구성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계획 수립의 과정, 특히 구성원들의 의도를 공유하게 되므로 나중에 누군가에겐 엉뚱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결과물을 줄일 수 있다.

추가로 교육 봉사의 경험을 짧게 말하자면, 주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이다 보니 아직 아이들의 언어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자기 의견을 빠르게 문장으로 완성하여 말하거나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때 메모지를 나눠주며 그것이 단어이든 문장이든 주제나 질문에 대한 것을 적으라 하면, 비교적 거부감 없이 아이들이 따라 주고, 모인 메모지를 정리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의도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름학교에서 배운 퍼실리테이션은 대략 이런 느낌이다. 이론적인 측면으로는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 미흡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봐줬으면 한다. 주절주절 말이 길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한 마디다.

"절대 배워서 실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접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기회가 된다면 이론적인 부분도 꼭 배워보고 싶다.



## 조금은 느려도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모두의 속도와는 다른 조금은 느리게 배우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일까요? 2018년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개입>에 대해 공부했지만 저마다 다른 아이들의 상황으로 유형을 이해하기도 교육적으로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다른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과 조금은 느리게 걷는 친구들에게 발맞춰 가기 위해 느린학습자를 만나고 실무자를 교육하시는 박현숙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상담센터 1 센터장 박현숙  
박현숙 선생님은 2008년부터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훈련을 해 오면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하시고, 청소년 현장의 실무자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의 이해와 개입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아이 접근법

#### 1 사고로 크게 다친 후 몸은 회복이 되었으나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 어렸을 때부터 학습 보다는 예체능쪽을 했기 때문에 학습의 경험도 별로 없고 인지기능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고 이후로 인지기능이 더욱 쇠퇴되었을 것으로 본다.
- 교통사고라는 트라우마와 사고를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스스로의 무의식속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으나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른 종류의 삶을 내가 살려고 했구나 하고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사건 자체에 대해 본인이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전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고, 공동체 활동의 참여를 위해 스티커제(칭찬스티커)를 운영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바라는 행동수정의 목표와, 본인이 칭찬스티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잘 조절해야 한다. 이 때에 중요한건 약속한 것을 잘 해서 스티커를 받을 때 성취감을 더 크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이 잘 한 것으로부터 행동수정이 들어가야 한다. 목표했던 것이 성취됨으로 해서 내적인 보상이 스스로 되었어야 더 효과적이다.  
내가 숙제를 잘 했으니까 뿌듯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지 않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자제하고 양보하는 것들을 하면서 보상을 받도록 한다.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지도가 되어야 한다.

- 학습이 안 된다면 보드게임이나 집중력 훈련 게임을 하는 게 좋다. 게임방법이 단순한 건 하는데 규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생각해서 하게 하면 안 하려하는 친구들은 약간 어려운 보드게임을 할 때에도 다른 애들 같이 있을 때에 하면 안 되고 1대1로 따로 쉬운 단계부터 알려줘서 다른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이 된 다음부터 다 같이 있을 때 해야 한다.
- 상급학교, 대학에 진학할 때도 교육과정과 수업과목을 확인하고 트라우마를 고려해 봐야겠다. 반드시 들어야하는 수업이 있는데,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트라우마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회성을 높이려고 밖으로 보냈다가 친해졌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면서 조현증이 발발이 되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될 우려도 있다.

#### 2 에너지가 많은 청소년.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폭력성이 높아지는 청소년

- 에너지가 많은 청소년들은 그 에너지를 잘 소화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나 타인을 공격 할 수도 있다.
- 비행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노래방, pc방, 음주, 흡연 등으로 에너지를 빼는 것일 수도 있다.
- 답답하고 무거운 이 마음을 흡연으로 '후후' 내뿜어서 해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
- 넘치는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풀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통은 느린 학습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운동을 하게 한다. ADHD등의 친구들은 상대가 있는 운동을 하게 해서 안의 에너지를 발산하

도록 하면 좋다. 구기종목의 경우 특정 부위를 맞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맞아도 타격이 적은 탁구공이나 풍선 등을 이용해서 힘을 빼는 활동을 하게 하면 좋다.

- 수업을 꼭 들어야하는 상황이라면 그 수업 안에서 앉아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혹은 다른 대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대체행동 제시 없이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듣게만 하면 좌절이 크게 오고 에너지를 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3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쉽게 그만두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자주 갈등이 생기는 청소년

- 경계선 지능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쉽게 그만두는 이유를 잘 꼼꼼히 살펴보면 일을 할 체력은 되지만 눈치껏 행동하고 머리를 싸야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인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 현장에서 동시에 주머니 들어오는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생각에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 여러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과정을 세밀히 관찰해서 '세자리 수 뺄셈이 안 돼서 그런거구나.'와 같은 실패의 경험, 원인을 정리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궁금해도 물어볼 수 없는 이 친구들은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뭘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다.
- 아르바이트든 학습이든 대인관계든 육하원칙에 따라서 물어보고 힘들었던 부분을,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주면 좋겠다.
- 예를 들면 힘들다고 하면 어떤 것이 힘든지 구체적인 보기를 주어 물어본다. 사람들을 대하는거? 고기씨는거? 등을 자세히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만뒀냐고 질책하지 말고 잘 하는 것, 어려웠던 것을 잘 대처한 것에 대해 찾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좋다.
-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해야 좀 덜 공격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라도 알려주자.

#### 4 수업시간만 되면 답답하고 어디가 자주 아픈 청소년.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학생이 힘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힘들어하는 활동과 힘들어하지 않는 활동을 구분해서 왜 어떤 지점에서 힘들어하는지를 확인해서 개입해야한다.
- 답답하다 말하는 거 앞에 원인을 붙여서 말하도록 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또는 구체적인 사안 (사고 후유증으로 생각하는 힘이나 학습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진 것일 수도 있어. 어떻게 힘든지, 어떻게 답답한지 얘기해줄래?)을 제시해서 말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 우리가 받아 적다보면 답이 조금은 보일 것이다.
-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나 이유를 물어봐주고, 책임기를 권하는 것도 좋다. 커리큘럼에 있는 책이 아니라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도서를 제안한다. '어른들이 하는 동화모임에서도 이런 책을 읽는데.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보자' 하면서 이 학습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당 청소년 담당 선생님이 중심을 잡아줄 필요 있다.
- 언어로만 하는 수업보다 실습을 하면서 하는 수업이 관계형성에도 좋은데 목공 같은 수업이 좋다. 몰입, 결과물 생산, 행동이나 사고가 좀 빨라지게 된다. 학습상황에 앉아있으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등 부적절감이 생기는데 뭔가 내가 만들고 해내면 긴장이 해소되고 적대감 좌절감이 해소되기도 한다. 몰입이나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배우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경험들이 생겨서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목공과 함께 책 읽기도 할 수 있게 하려면 관련된 책을 소개해주는 것도 좋다. 「뽀뽀한 망치질」 같은 책을 끝까지는 아니어도 공감되는 부분 읽고 흥미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준다.
- 목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 등을 잘 관찰해 줘야 한다. 에너지를 표출해야 하는데 '목공을 하면서 적절히 에너지를 발휘하고 너의 힘을 긍정적으로 쓰는 데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멋진 곳에 멋진 힘을 사용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친구들이 사실 잘 대답을 못한다. 그럴 때는





감정 체크리스트를 쥐고 되고, 두 가지를 제안해서 어떤 거냐고 물어봐도 되고. 해당 수업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게 하면 된다. 수업별로 그런 짧은 소감을 남긴 걸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5** **또래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는 기초학습.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학습능력이 향상되지 않을 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 줄 순 없을까?**

- 학습수준이 낮다고 고등학생 연령의 친구들에게 초등 교재부터 하게 하면 학습을 놓게 된다. 학교에서 하는 걸 활용해서 남들이, 또래가 하는 걸 활용해야 효능감이 올라간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가지고 인지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이트 '꾸꾸'에서 활동지, 자료들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이런 친구들은 인지기능, 빨리 생각해내는 능력을 길러야하기 때문에 보수(더해서 10이 되는 것) 개념부터 두뇌훈련/게임식으로 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거나 끝말잇기 이런 것들을 게임식으로

으로 진행해보면 좋다. 이런 재밌는 활동을 하다가 집에 가서 10개 연습해오라고 하면 해온다.

- 받아쓰기를 했다면 본인이 채점하도록 한다. 소리내서 빠르게 읽기를 연습하는 게 작업 기억을 빠르게 하는 것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한 글자 한글자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순행으로 읽으면 자동화가 되어서 제대로 읽지 않아도 인식하는데, 거꾸로 읽게 하면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너무 필사만 했기 때문에 읽게 해야 한다. 목소리가 작게 나오는 건 내 목소리가 밖에 나왔을 때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 5개 단어를 하면 3번 쓴 다음에 백지에 생각나는 걸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채워서 쓰도록 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 $3+x=5$ 에서  $x$ 를 다른 걸로 바꾸면 모르는 건 추상개념이 안되기 때문이다. 추상적 개념을 쉽게 전달해야한다.  $x$ 와 네모가 들어가 있는 일차방정식을 주고, 그 식의 서로 다른 점을 스스로 찾게 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날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학습을 한다.
- 문제를 읽고 응용해서 푸는 걸 하루 하나씩 하되 시간을 넉넉히 주어야 부담 없이 해낼 수 있다. 그게 익숙해지면 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는 시간단축을 도전해보자.

**검정고시가 필요 없는 경우**

-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이 필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원가를 기억하고, 맞춤법이 틀리지 않게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으로 간단한 어플을 깔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등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

**검정고시가 필요한 경우**

- 과락 없이 60을 넘겨 합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리해두고 개별화된 검정고시 전략을 짜자.
- 검정고시 문제 분석 필요.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공략을 짜자.

**상황별 대처법**

**1 공동체 활동 속 주제와 상관없이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는 청소년**

- 꽃혔던 걸 가지고 관심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게 한다.
- 집단에서 얘기할 때에 줄줄이 이야기하면 딱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말할 수 있게 연습시키고, 짧게 제한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자. 추가 시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요한 얘기를 못했음을 인지해서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한다.



**2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혼자하는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청소년**

- 두려워하는 것이 낫설어서 인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두려운 건지,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첫 단계는 동기유발을 위해 쉽게 한다.
-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과는 동행하면서 어떤 지점(직행, 환승 등)에서 어려워하는지 확인한다.
- 질문 기회에 대한 횟수를 제공하여 활동 시 스스로 하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처음에는 무분별하게 질문할 수 있으니 기회를 아껴서 진짜 필요할 때에 사용하게 한다.
- 불안해서 전화하는 걸 마냥 안 받아줄 수는 없다. 그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같이 둘러보면서 직접 말해보게 한다.
- 청소년이 원하는 곳까지 찾아서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3 모르는 것을 들리기 싫은 청소년. 모르는 것을 들었을 때 회피하고 하지 않으려는 청소년**

- 경계선지능의 친구들이 정서나 사회성 발달도 늦을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래가 사춘기 접어들면 이 친구들에게도 사춘기가 온다. 그래서 '경계선지능' 같은 말이 적혀있는 교재를 공부하게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안하려고 한다. 교재의 길표지나 활동지 제목을 바꾸어 제시할 필요가 있고, 따로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도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야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
-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진도에 연연해하지 말고 학교 진도와 어느 정도는 맞춰서 효능감을 느끼도록. 지능지수 84정도면 학습적인 부분에서 올려줄 수는 있고, 진도를 고려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걸 몰랐을 때에 사회에서 큰일 나겠다 싶은 걸 알려주는 걸 먼저 해줘야한다. 예를 들면 다같이 먹고 내가 계산하고 돈을 나눠서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다. 돈계산 부분은 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가르칠 것. 시간 계산, 숫자보기 부분은 반드시 해야한다.
- 방어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원가를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여기(드림센터)가 되어 주는 것도 좋겠다. 이 친구가 필요한 사회성과 관련된 일상에서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여기가 되면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 모르는 걸 잘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것이 장점이다. 다만 그 사람에게 물어봐도 되는 경우인지 물어보거나 눈치를 봐서 확인한 후에 물어봐야 함을 알려준다.
- 들릴 것 같은 것, 예상 멘트를 먼저 긍정적으로 해주자. 다 좋은데(앞 부분에 잘 하는 것, 보여지길 원하는 상을 충분히 표현) 이거 좀 더 해보자.
-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면 족보, 매뉴얼을 남겨주자.
- 혹시라도 될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어려워 물어볼 수 없을 때 나중에 와서 물어봐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자. 지금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건 서로 상호간의 소모전! 본인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
- 예측되는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훈련을 시켜주고 언제든 필요할 때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친구를 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돌볼 수 있다.

**기억이 안난다**

- 통으로 다 말하지 말고 힌트를 줄 것. 몇 가지였어. 몇 글자였어. 스무고개처럼. 온전히 자기가 기억해내는 연습을 하게 할 것.

Vs

**모르겠다**

- 모른다고 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떠올려보자~ 하면서 기억과정을 되짚어볼 수 있는 힌트를 줄 것.

- 기억하는지 안하는지, 숙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지 말자. 시험에 들게 하지말자.
- 제가 왜 이걸 왜 해요? 하는 질문은 청소년도 해야 하는 걸 아는 상황이다. 그래.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와 같은 단어로 화제 전환 하면서 다시 하게 해보자.



**Q** 느린학습자 친구들도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 줘야 하는데. 추천 해 주실 직업군이 있을까요?

**A** 바리스타나 네일아티스트 직업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직업군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화상태이기도 해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배, 중장비 기사, 약국사무 등 여러 훈련과정들을 찾아 훈련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연계하고 끝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안정화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도움과 관심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 두 번 해보고 그만 두는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Q** 경계선,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이성/성적인 관심, 인정받음에 대한 갈구가 크고, 그래서 나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걸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성교육, 지속적인 관심 등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A** 관계에 있어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성과 좋은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거나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을 빼앗기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 맺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고, 어떤 일이든 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노력해 보는 것,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탁틴내일에서 경계선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의 일시적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행동반경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 범위를 넘어설 것 같으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의 마지막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융통성 없는 사고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좋은 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정립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Q** 학생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교육하려는 학부모와의 상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도돌이표인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부모와의 상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보호자)이 잘 해 오셨던 점을 꺼내서 칭찬해주면 일단 긍정적 라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해 오신 것도 엄청 대단하시고요, 제가 어떤 걸 도우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바와 개입하길 바라는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정도를 타협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한 지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Q** 타인과 소통할 때 자신이 가장 잘 했던 것에 대해 복귀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깨는 학생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A** 네가 OO을 잘 해서 어떤 점이 좋았어? 상을 받으면 좋았어? 그럼 인정받아서 좋았구나~ 그럼 OO하는 거 말고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서 원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이뤄낼 수 있는 걸 현재로 꺼내 주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걸음이 느린 우리아이  
기를 짝짝 살려주는  
교육법!

01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처럼 잘 못해도 바로 티가 안 나는 일을 해볼 수 있게 해주자.



02

뭘든 청소년이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것이 필요함!



03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불편하기만 하지 그 다음의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은 청소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 던지고, 그 상황을 개선해볼 수 있게 도움을 주자.

04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느린학습자 친구들의 특징이지 내가(실무자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무지개식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급식 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한 중학생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한 멋진 발명품이 탄생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식판의 작은 변화!**

그것이 반반을 스스로 조절하고 줄일 수 있도록 자신의 식판에 담긴 음식량을 가능하고 먹을 만큼만 담을 수 있도록 무지개 모양의 선을 식판에 그어 이를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70% 가량 감소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죠?

일상 생활 속 작은 관심이 큰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교육을 이번 저희 드림센터 교육팀에서 배워보았습니다.

기관 내·외부에서 참여한 1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는 학습자 중심의 배움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는 유쓰망고의 전략기획 디렉터 허경진 강사님을 통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란?**

쉽게 말해 변화를 만드는 사람(Change Maker)이라는 뜻으로, '나를 둘러싼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교육의 현장 안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공감에 기반한 문제 찾기 과정을 통해 내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로 찾아보고,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주변의 문제들이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집 앞 쓰레기 관련 문제부터 직장 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청소년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등 생각보다 꽤 많고 다양한 의견들이 그룹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나왔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선별하여 그 문제에 대한 욕구(N)와 문제점(P)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공감 캠페인 활동까지 실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이런 활동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반복하여 생각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다보니 문제 중심의 사고를 다양한 측면으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다양한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한 참여자 대부분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참여수업 등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을 함께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Why'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해 가는 과정도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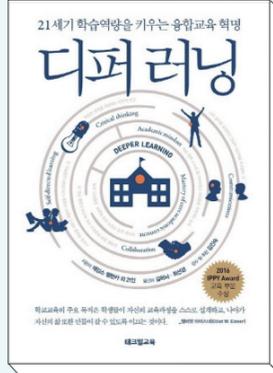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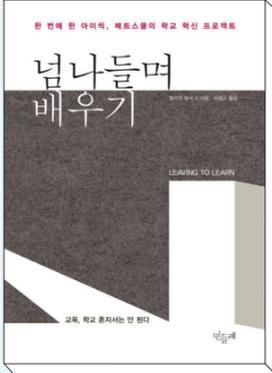
특히, 개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꿈에학교와 이룸학교에서는 이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적용하여 진행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점이 교육 이후에도 있었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많았던 교육이었습니다.

체인지메이커 교육을 통해 느낀 것은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로서 앞으로 체인지 메이커라는 활동을 통해 어떻게 배움의 현장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갈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팀 내 대안학교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내년 초에 다시금 충분히 다루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는 작은 생각의 차이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번 체인지 메이커 교육 과정을 통해 내년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바로 나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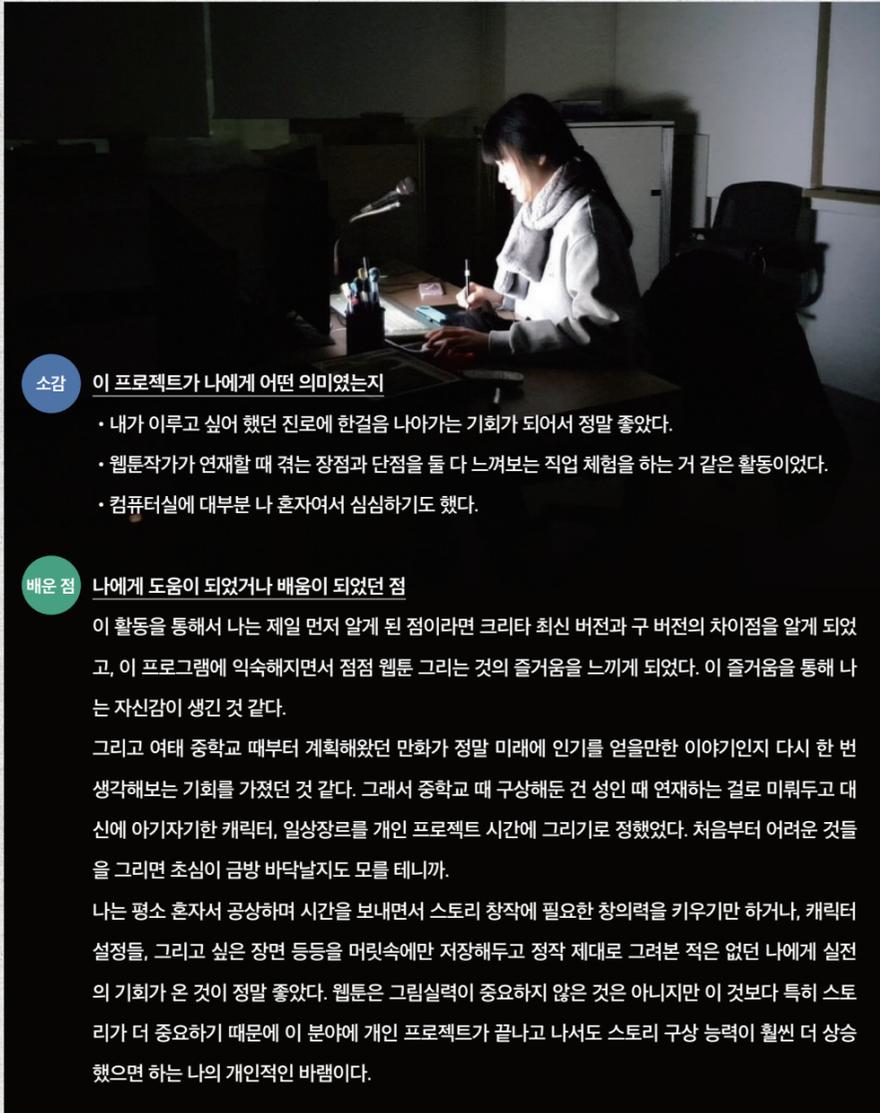
**체인지메이커가 궁금한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 하늘이 준 깨달음

이름학교  
이효기

이름학교에는 웹툰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이효기 학생이 있다. 이번 학기 개인프로젝트 주제를 '웹툰 프랙티싱(practicing)'으로 정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크리타'라는 프로그램으로 웹툰 작업을 진행했다. 직접 이야기를 짜고,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완성해가는 작업이 고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효기의 웹툰 제작기와 작품을 소개한다.



**소감** 이 프로젝트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진로에 한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다.
- 웹툰작가가 연재할 때 겪는 장점과 단점을 둘 다 느껴보는 직업 체험을 하는 거 같은 활동이었다.
- 컴퓨터실에 대부분 나 혼자여서 심심하기도 했다.

**배운 점** 나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배움이 되었던 점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제일 먼저 알게 된 점이라면 크리타 최신 버전과 구 버전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웹툰 그리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 즐거움을 통해 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여태 중학교 때부터 계획해왔던 만화가 정말 미래에 인기를 얻을만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구상해둔 건 성인 때 연재하는 걸로 미뤄두고 대신에 자기자기한 캐릭터, 일상장르를 개인 프로젝트 시간에 그리기로 정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을 그리면 초심이 금방 바닥날지도 모를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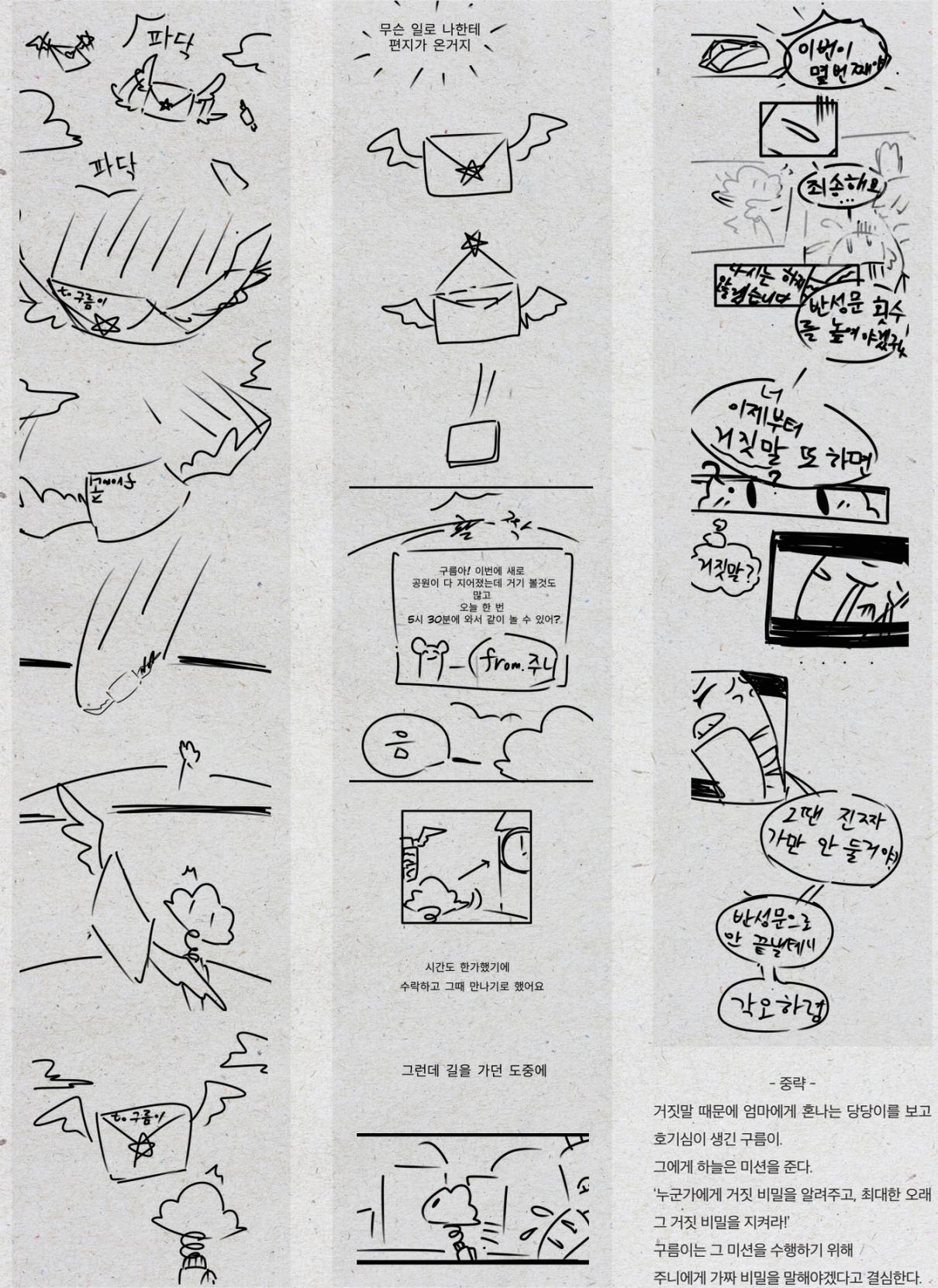
나는 평소 혼자서 공상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스토리 창작에 필요한 창의력을 키우기만 하거나, 캐릭터 설정들, 그리고 싶은 장면 등등을 머릿속에만 저장해두고 정작 제대로 그려본 적은 없던 나에게 실천의 기회가 온 것이 정말 좋았다. 웹툰은 그림실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것보다 특히 스토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개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스토리 구상 능력이 훨씬 더 상승했으면 하는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 친구들은  
펜(pen)  
입니다!



**전체줄거리**

친구 주니로부터 공원에 놀러가자는 편지를 받은 구름이(주인공). 주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거짓말을 해서 엄마에게 혼나는 당당이를 보게 된다. '거짓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구름이에게 하늘이 어떤 미션을 주게 된다.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구름이는 많은 고민을 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구름이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



- 요약 -

거짓말 때문에 엄마에게 혼나는 당당이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구름이. 그에게 하늘은 미션을 준다. '누군가에게 거짓 비밀을 알려주고, 최대한 오래 그 거짓 비밀을 지켜라!' 구름이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주니에게 가짜 비밀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한다.



# 만남이 있는 삶

## 다양한 교육 현장 이야기

공교육? 위탁교육? 우리는 이제 함께 한다(경기고 교사 이창형)

만나라 이웃나라를 탐구한다! 위탁형대안학교 '청소년희망학교'

징검다리 거점공간 '꿈꾸는 다락방'

나의 학교생활(구희진)



꿈에학교와 함께한 2년!  
공교육 교사가 바라보는 위탁형대안학교는 어떤 곳일까?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15년차 공교육 교사와  
교육 언저리라 칭하는 대안학교 교사와의 만남!

## 위탁형대안학교와 공교육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

경기도 교사 이창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창형이라고 하고요. 교육 경력은 올해 15년차이고, 경기고에서는 지난 3년간 생활지도 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 반에 김O윤 학생이 저희 위탁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안교육이나 위탁학교 등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하면서, 교내 Wee센터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위탁형 대안학교 꿈에학교를 알게 되었고, 학교의 커리큘럼이 정규 교육 과정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느끼시는 공교육과 위탁교육의 차이점과,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공교육, 제가 속한 경기고는 서울 안에서도 학력을 매우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또 학교 내 규정을 잘 지켜야 하고, 다양한 평가들을 수행해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틀 안에 있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 반에 학생이 저희는 약 40명 정도 되는데, 위탁학교는 15명 내외의 인원이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구조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두발이나 교복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년 교직생활 중에 위탁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셨었는지, 혹시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내려고 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보낼 때마다 학부모님들이 위탁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위탁학교에 한 친구를 보냈었는데 우려와 달리 적응을 잘했습니다. 실용음악도 배우고, 요리사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이를 통해 미래의 직업까지도 요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도 처음에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위탁학교에 가면 보통 학교 내에서 부적응 학생들이 모이다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낙인감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낙인을 부모가 먼저 찍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위탁형 대안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본인의 자아를 찾고, 다양한 동기 부여를 받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탁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배우고 경험했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으실까요?**

정규 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 영, 수 등 지식 위주의 수업을 강의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체험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교육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협동 수업 모형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면 수업을 통해 성취감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과 실무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끔씩 본교 방문의 날이라고 학생들이 본교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교 담임선생님이 위탁학교로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 또 어떻게 학교에서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교 선생님 초대날" 등을 기획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이들이 1년 동안 진행한 수업 중에서 미술 작품 같은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도 좋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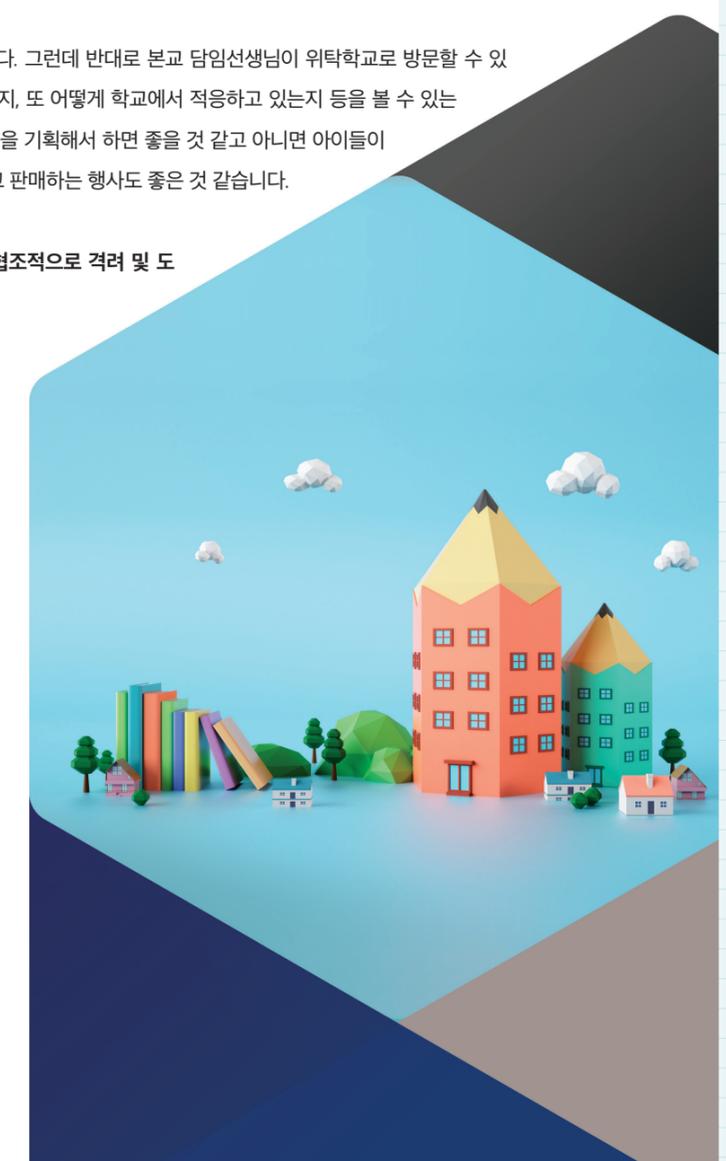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협조적으로 격려 및 도움을 주시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어른의 작은 관심들이 분명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께서 공교육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적응 학생들을 낙인감이 들게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적응할 수 있는 위탁학교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위탁형 대안학교는 부적응하거나 도태되는 아이들이 간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탁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개인이 자아를 찾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위탁학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갖도록 저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교육현장을 찾아가보자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일본 문화를 특화로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청소년희망학교

2010년 개교하여 2020년,  
10년을 준비하는 청소년희망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희망학교 입구,  
교실 한편에 있는  
학생들의 사물함.  
이들과 함께  
1년간의 목표가  
정겹게 적혀 있었다.

청소년희망학교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나라들 중 왜 일본을 특화로 선택 하였을까?

“아이들에게 무기를 만들어 주자!”

처음 학교를 준비 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고민이 많았다.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이 가지고 나갈 무기를 만들어 주고 싶어 하셨다. 사회에 나갈 때 경쟁력 있는 무기를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영어는 수학과 비슷하게 이미 교과서를 꺼내는 순간부터 반발심이 심하다. 잠을 자고 싶게 만드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 중국어는 한자를 너무 힘들어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와 어순이 비슷한 일본어를 해 보자고 의견이 좁혀졌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한자가 나오고 해서 어렵지만 처음 시작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본어를 해 보기로 했다.

일본어를 가지고 있으면 호텔에 취업을 하든 단순히 무슨 일을 하게 되던 직업으로 연계 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무기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야심찬 시작.

2010년에는 시행착오 기간이었다. 특히 첫 학기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랐다. 우리는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 대안교육은 둘째 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왔다.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 와서 부모님과 과격한 언어로 싸우는 아이들, 사고를 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떠나셨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아가페 사랑을 보여 줬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려주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 끝이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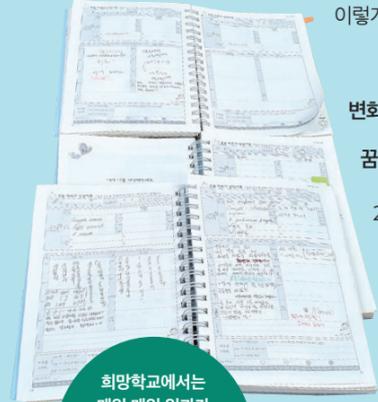
“선생님 여기서 몇 년 일했다. 너 만한 애들 계속 들어온다.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위탁교육의 정말 장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받는 입장이다. 너가 선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하지 말자.

어느날 이렇게 일할꺼라면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단순히 출석을 채워주는 학교가 아닌 아이들 삶을 변화시키는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의 밀당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그 후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와서 앉아있기 시작하였고,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3개월이 같이 있어서 졸업을 하고 나간 친구들과 재위탁을 오는 친구들이 신규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 줬다. 그런 입소문만으로도 수업 분위기는 유지가 되었다. 물론 가끔 롤 파피자(?)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그냥 계속 마지노선을 알려주었고 나쁜만 아니라 기존의 학생들이 그러한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특별히 학교의 분위기가 변화된 적은 없었다.



희망학교에서는 매일 매일 일과가 끝난 후 학생들이 성찰일기를 쓰고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아 준다.

이렇게 1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고나니 아이들이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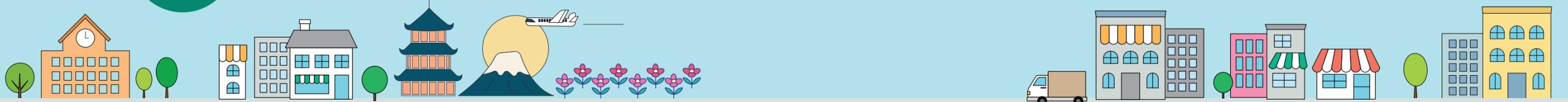
변화한 아이들. 공부와 담 쌓고 살던 아이들에게 대입이라는 꿈을 만들어준다.

2010년에는 우리가 입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고3 학생들을 받지 않았고 다행히도 입학 신청도 없었다. 2011년에 처음으로 고3들이 대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서 후배들이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에도 희망학교에는 고1이 대입 합격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대학을 가겠다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일본어 특화다 보니 호텔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고, 3년 동안은 건축 쪽으로도 많이 갔다. 일본어를 활용해서 대입을 가는 학생들이 많다. 대학에 간 친구들이 교양과목에서 일본어 A를 받았으며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 학교는 일본어 특화인 만큼 일년에 1~2명 정도 일본 대학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EJU라는 입시제도와 JLPT자격증을 통해 일본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이 시간을 더 내서 하는 것과 학원을 통해 더 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수업만으로 일본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JLPT 2급 이상이 되어야 전문학교를 갈 수 있고, 그 대학의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일본의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2급이 최소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수업의 용어는 다르기 때문에 JLPT는 일상생활 용어이기 때문에 2급도 수업을 이해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EJU는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용어인데 그걸 공부하는 것은 유학원, Y\*M 등 언어 입시 학원을 통해 공부해야 한다. 유학원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정보는 걸러주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잘 믿지 않는다. 특히 고3에 온 학생들의 경우 안 믿는데 속이 탄다. 입시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시켜 주고 싶는데 신뢰하지 않을 때 그 과정이 좀 힘이 든다.



# 청소년희망학교



### 공부하는 교사. 기다림은 결국 믿음을 만든다.

아이들이 신뢰하지 않을 땐 기다리며 우리들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준다. 특히 일본 관련으로 신뢰하지 않는 학생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자주 일본에도 오가고 있으며, 일본어 선생님도 일본에서 살거나 일하고 오신 분들이고, 올해 12월 27일에 일본 전문학교 선생님이 초청해서 학교 안내도 진행할 것이고, 유학 박람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하며 학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우리도 유학박람회 같은 곳에 자주 방문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아이들에게 일본어 관련 정보를 가이드 해 줄 수 있다. 일본어 외에도 학교생활도 마찬가지로. 적응할 시간에 대한 기다림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부지런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아이들 눈에 보인다. 아이들한테는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라고 지시만 해놓고 아이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모르면 안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너희만 하는게 아니라 선생님도 함께하게 또는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해야 한다. 아이들과 작년에 처음으로 제과제빵기능사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다. 결과는 엉망이었고 살짝 창피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며 나와도 친해지고 구성원끼리도 친해져서 헛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아이들의 변화.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다가 28살에 처음 재단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돈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보람이 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줄

업생의 결혼식을 가는데 학교 적응에 어려움으로 자퇴를 했다가 복학해서 친구의 권유로 희망학교에 왔다가 지금은 좋은 기업에서 근무하며 잘 살고 있다.

일년에 약 1억의 비용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 1명을 살릴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년에 1명씩만 살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아이의 인생이 변했으니까. 하물며 1명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교육은 이런 곳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있을 때는 몇 살까지만 하자! 아이들과 소통 할 수 있을 때 까지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끈대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때가 되면 다시 진로를 고민 해야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같이 지지고 볶고 하고 싶다.

### 변화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안에서 교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확실히 오는 아이들이 변했다. 전에는 주먹질로 벽에 구멍 뚫고, 의자를 던지는 등 비행의 성향인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대인관계나 다소 경미한 정신적인 아픔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런 환경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한 내 지식이었다. 내가 모르니 교육, 연수를 많이 들으려 노력했고, 인터넷을 통해 짧게라도 글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은 태도에 변화를 주려고 했다. 그 전에는 언어, 행동에서 거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제를 많이 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일부러 가서 부딪히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내향적인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알고 대하는 태도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 거칠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잔잔하게 이야기를 한다. 학생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나눌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카톡을 사용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며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알려드리고 있다.

### 악화되는 한일관계. 일본 문화와 캠프를 교육하는 청소년희망학교는 어떻게 받아들



### 이고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는 안갈까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되던 6월에 사전답사 겸 진로견학으로 일본을 다녀왔고 그 곳의 전문학교(우리나라의 전문대)와 12월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다. 이미 약속을 정한 상태에서 반복하기 곤란한 점과 다른 나라나 국내로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면 일반 관광여행과 똑같아지는 점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일본으로 국외 체험활동을 떠나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가 일본을 희망하여 큰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 시국에 일본에 간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현지에 서의 혐한을 당할까 걱정도 되지만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신 일본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기본 예의만 잘 지키면 먼저 해코지할 염려는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셨다. 매년 일본에 다녀오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가이드나 호텔리어, 선배들의 일본어 회화하는 모습 등을 보며 자극을 받아서 일본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년에 1~2명이 꼭 생긴다.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대화하는 미션을 진행하는데 학생들 간 수준 차이는 있지만 교실에서 배운 일본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아이들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속해 보려고 한다.

###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들.

#### 소진 관리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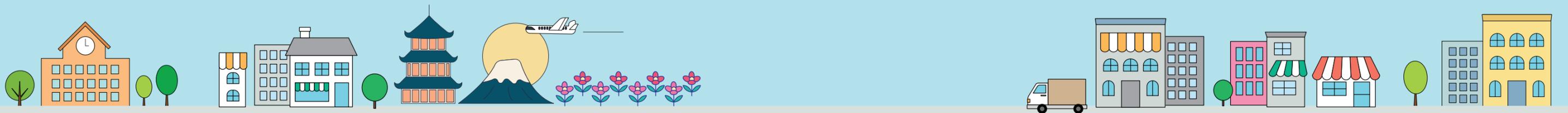
소진이 온 적이 있었나 싶다. 가끔 한번씩 혹은 꺼질 때가 있긴 하다. 믿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배신한다 느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깊게 고민을 할 틈이 없었던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또다른 이벤트를 준비해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진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SNS에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를 하는 편이다. 페이스북에서 나만 보기로 글을 써 놓으면 1년 후에 알림이 오는데 이러한 글들이 나를 점검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포인팅이 아닌 10 피칭과 진로견학으로 일본을 다녀오신 일본어 선생님들께서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도의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내기 위해 함께 하고 있는 다양한 위탁교육기관 현장의 실무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1년~2년이면 실무자가 바뀌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현장에서도 10년을 버티며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간 김호성 선생님의 앞날을 응원한다.

서울시에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6개소를 운영 중이다! 학교마다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니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쯤 소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렵게 두드린 만큼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꿈꾸는 공간!  
누구나 갈 수 있는 편안한 아지트!

## 징검다리 거점공간 '꿈꾸는 다락방'



지하철 6호선 응암역 3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있다. 바로 '꿈꾸는 다락방(이하 꿈다)'이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을 들락날락 거리며 뭔가를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어떤 곳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드림센터 교육팀에서 직접 그곳을 다녀왔다.



“ 목적 없이 올 수 있는 편안한 아지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

뭘 하려고 꿈다를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2011년에 처음 문을 열 때는 무료 공부방도 하고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과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어딘가에 강제로 있거나 불편하게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있고 싶은 공간', '도전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마을사람들도 막 오고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여기서 만나고 노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운영할 예산이 필요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원 받게 됐고, 그러면서 규모가 커지게 된 거죠. 2016년부터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안교육기관(징검다리거점공간)으로 등록 돼서 학교밖,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과 꿈 여행, 검정고시 수업 지원도 하고 법정보호청소년들과 함께 캠프도 가요.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동아리 프로그램, 꿈다를 졸업한 청년들과 협동조합 활동도 하고요. 마을 사람들도 와서 아지트처럼 지내요. 아, 보드게임 동아리 애들이랑은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드게임 박람회 같은 걸 하면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걸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서 만들고 운영해요.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건 '청아기획단'과 '드림아카데미'예요. 청아기획단은 '청소년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말의 줄임말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이고, 드림아카데미는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이에요. 밴드, 비트박스, 칵테일, 요리 동아리 등 여러 가지 아이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해요.

**다**양한 활동 포스터와 모집 안내문들을 보며 지하로 내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와~'하는 탄성이 나왔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알차게 채워져 있었다. 바리스타 수업도 하고, 음료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방, 밴드 수업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검정고시 공부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다양한 동아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널찍한 테이블, 쉬고 노는 공간들이 있었다. 게다가 처음 방문한 우리를 향한 친절인사와 맛 좋은 웰컴드링크까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이었다. 꿈다의 대표교사인 김세희 선생님과 길잡이교사인 김다은, 이소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여러 스타일의 대안 기관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없어서 아무데도 못 가는 애들도 많거든요. ”

어딜 가면 항상 '~하지 마.', '~하면 안 돼.'라고 금지시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수업 때에도 선생님, 교수님이랑 다른 생각 가지거나 다른 의견 내면 안 되는 분위기도 많고요. 그런 게 아이들이 창의롭게 크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다에서는 애들이 뭘 할 때 틀린 것들이 많이 보여도 뒤로 물러나서 말 거요.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게요.

그리고 기관에 따라 대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대안학교나 기관의 색이 많이 달라지는데,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없어서 아무데도 못 가는 애들

도 많거든요. 애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더 잘 가니까 지역마다 인문학, 여행, 놀이, 캠핑, 만화...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기관들이 많아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구든 와서 편안하게 머물고, 꿈꾸는 모든 것을 도전하길 바라는 꿈다 선생님들의 마음은 공간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노래방 기계와 게임기, 컴퓨터, 100개는 족히 넘어 보이는 수많은 보드게임, 먹고 싶은 음료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카페&주방을 주욱 둘러보면서 '나도 여기 맨날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맘에 들었던 것은 사진에 보이는 빈백소파였다. 소파에 푹 파묻히면 피로까지 쏙 빨아들여 주는 것 같아 당장에 장만해서 우리 센터에도 놓고 싶을 정도였다.

혹시나 지금 무언가를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을 펼칠 공간과 함께 할 친구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꿈꾸는 다락방으로 달려가보자.



학생수기

나의 학교 생활

2019년 3월, 웃음이 예쁜 한 여학생과의 만남.  
2019년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의 다짐을 적어 내려갔다.

꿈에학교  
구희진

나는 우리 집의 육남매 중 다섯째 딸이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은 부모님, 특히 아빠에게는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하지만 나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다. 어려서부터 늘 혼자였다. 운동하는 오빠를 챙겨야했던 엄마. 늘 바빠서 가족들 대신에 집안일은 어린 나의 몫이었다. 학교를 다니고, 집안일을 하는 것들이 싫었다기 보다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힘들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위에 다양한 성격들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것 보다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들도 더 많아진 것 같다. 내가 집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던 부모님과 가족들은 나를 더 이해해 주시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나의 힘겨움, 외로움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다. 물론 그걸 목적으로 생활한 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진 만큼,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부모님과 관계도 점점 더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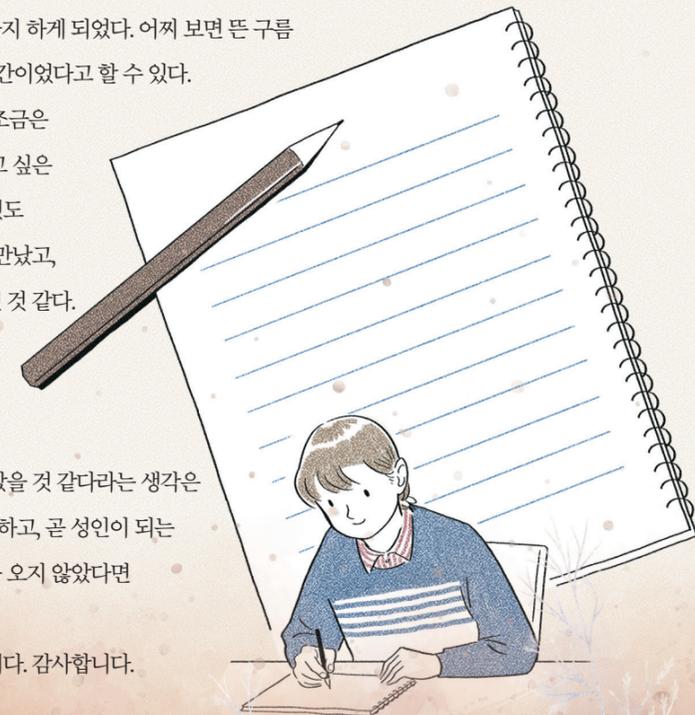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 좋은 친구들 이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부모님들은 저를 더 못 믿게 되었고, 집안에서도 저를 더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다. 본교에서도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선생님들한테도 늘 꾸중만 듣게 되었다. 그렇게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안학교를 가게 되었다.

대안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더 좋은 고등학교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집에서도 늘 잘 표현을 안 하고, 안 웃던 내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 벌써 19살까지 나이를 먹었고, 대학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대학이라는 목표에 대해 나의 한계를 더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들이 다 가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진지하게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들을 통해 어울리는 과를 선택해서 대학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올해 대안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났고, 더 좋은 추억들도 만들었고, 학교에서 간 캠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다.

캠프 때 봤던 바다도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렇게 내 변화된 생활의 돌파구,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조금 아쉽다. 처음부터 잘 했으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을 텐데, 그래도 몇 일 만남기도 했고, 마지막 10대이기도 하고, 곧 성인이 되는 날까지 좋은 추억들을 더 만들어가고 싶다. 만약 내가 대안학교를 오지 않았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더욱 안 좋았을 것 같다.

대안학교를 와서 더 나은 학교생활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 재미가 있는 삶



## 현장스케치

나누는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시민 - 꿈에·이룸학교 연탄봉사

드림시네마 'JUN YOUNG 웰치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이룸학교의 동아리 이야기

2019년 교육팀 AWARDS!

## 살짝엿보기

우리아이들! 학교에서 도대체 뭐 하나요? - 쉬는시간편

그리고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2019년 드림발표회

2019 교육팀 하반기 결산 우리들의 골든메모리즈

학생작품 류하늘

## 교육팀의 연례행사, 연탄봉사활동

꿈에학교·이룸학교 연탄봉사

드림센터 교육팀에는 꿈에학교, 이룸학교, 점프업코스 친구들이 일년 중 가장 뿌듯하면서도 힘들어 하는 날이 있다. 평소에는 친구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유익하게(?) 세대차이를 느끼는 바로 그 시기! 서울에 몇 안남은 달동네 구룡마을 연탄 봉사활동! 태어나 한번도 연탄을 본 적 없는 학생들과, 지금은 쉽게 접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적 향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올해는 연탄 전달 외에도 수업 시간에 배운 제과제빵 기술을 뽐내기 위해 마들렌까지 구워 갔다는데, 그 활기 넘치는 현장을 사진으로나마 만나보자.



### 사전교육

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자원봉사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시작하면 더욱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보통교과 수업시간에는 자도 봉사 사전 교육은 잘 수 없는 꿀잼 수업!



### 10/8! 드디어 봉사활동 시작

서로서로 도와 옷을 보호하기 위한 우비를 거꾸로 입고, 앞치마를 하고, 팔뚝까지 올라오는 비닐장갑과 목장갑을 착용하면 준비 끝!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주의 사항을 듣고 일터로 향하는 이룸, 꿈에학생들. 반드시 2시간안에 2,600장의 연탄을 옮기고 말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어? 생각보다 힘들네

으쌔으쌔 열심히 날라도 줄지 않는 듯한 연탄에 점점 어두워지는 친구들의 얼굴과 느려지는 속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쌔~〇〇이가 없어요!"와 동시에 들리는 호다닥 후다닥. 킬킬킬킬.

그래도 자체 휴식을 취하고는 미안한 마음에 다른 친구들보다 몇장씩 더 들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친구들! 이게 교육팀 친구들의 의리지

교육팀의 연탄봉사활동은 하기 전에는 가장 공포와 힘듦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활동 중 하나로 손 꼽히는 활동이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연탄 전에는 반드시 탈출하고야 말리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다음해에도 묵묵히 연탄을 나르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 할 수 있다.

###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한 장 두장씩 차곡차곡 나르다보니 점점 줄어드는 연탄들. 힘은 들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 카메라에는 밝은 모습으로 임하는 우리 친구들



"연탄나르느거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고맙다고 거기 어르신들이 그러시고 어떤 분은 사이다도 주셨는데 태어나서 먹은 사이다 중에 제일 꿀맛이었어요. 다 같이 하니깐 재밌기도 하고."라며 후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도시 속 편리함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이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린 이 순간을 언제나 기억하고 후에 더욱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대 해 본다.

### 연탄봉사를 끝내고 난 학생들의 마지막 한마디!



- 그래도 연탄 나르느게 조금 재밌고 뿌듯했다.
- 처음 이런 봉사를 해 봐서 신선했다.
- 연탄봉사 빠지지 마세요!
- 함께 땀 흘리며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가 나른 연탄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로튼 토마토’라고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영화 관련 웹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로튼 토마토는 영화에 대한 소식, 비평, 정보 등을 제공한다. 사이트의 이름은 옛날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연기력이 매우 나쁜 연기자들에게 토마토를 던졌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JUN·YOUNG 웰치스”는 무엇인가? 이룸ing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번, 원하는 영화를 찾아보고 그 영화를 볼 때 JUN이 좋아하는 시원한 웰치스가 얼마나 당기는데 대해 지수를 매겨 본 것이다. (영화의 평점은 총 5점(★★★★★)이지만 개인의 기호에 따라 별이 추가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그럼 대망의 첫 영화부터 함께 살펴보자!

**01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 2019. 8. 21.(수) 관람

“세상이 멸망하면서 누가 미친 건지 알 수 없어졌다. 나인지 이 세상인지..”

핵 전쟁으로 멸망한 22세기. 얼마 남지 않은 물과 기름을 차지한 독재자 임모탄 조가 살아남은 인류를 지배한다. 한편, 아내와 딸을 잃고 살아남기 위해 사막을 떠돌던 맥스(토ム 하디)는 임모탄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 노예로 끌려가고, 폭정에 반발한 사령관 퓨리오사(샤를리즈 테론)는 인류 생존의 열쇠를 쥔 임모탄의 여인들을 탈취해 분노의 도로로 폭주한다. 이에 임모탄의 전사들과 신인류 뉴스(니콜라스 홀트)는 맥스를 이끌고 퓨리오사의 뒤를 쫓는데... 끝내주는 날, 끝내주는 액션이 폭발한다!

준 ★★★★★(6.0) “액션이 재미있었다.”  
 영 ★★★★★(5.0) “액션 완전 멋짐! 기타리스트 짱”  
 현수 ★★★★★★(10.0) “철컹, 두두두두두두(멋짐)”



**02 알포인트** 2019. 9. 5.(목)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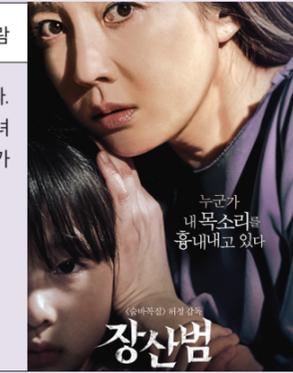
1972년, 베트남 전쟁의 막바지, 200명의 부대원 중, 혼자 살아남은 훈바우 전투의 생존자 최태인 중위(감우성)는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의 본대 복귀 요청은 철회되고, CID 부대장(기주봉)은 그에게 비밀 수색 명령을 내린다. 72년 2월 2일 밤 10시. 이 날도 사단본부 통신부대의 무선기엔 “당나귀 삼공...”을 외치는 비명이 들리고 있다. 6개월 전 작전 지역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8명의 수색 대원들로부터 계속적인 구조요청이 오고 있었던 것. 그 흔적 없는 병사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 3일 후, 좌표 63도 32분, 53도 27분. 로미오 포인트 입구. 어둠이 밀려오는 밀림으로 들어가는 9명의 병사들 뒤로 나뭇잎에 가려졌던 낡은 비문이 드러난다. 不歸! 손에 피 묻은 자, 돌아갈 수 없다!!! 7일간의 작전, 첫 야영지엔 10명의 병사가 보이고... 그러나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준 ★★☆☆(3.5) “공포영화는 아니었다.”  
 영 ★★★★★(4.0) “깜짝 놀라진 않았는데, 놀랐다.(ㄴ)”  
 선숙 ★★★★★(4.5) “두려워 할 것은 귀신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다.”

**03 장산범** 2019. 9. 11.(수) 관람

도시를 떠나 장산으로 이사 온 희연(염정아)은 무언가에 겁을 먹고 혼자 숲속에 숨어있는 여자애(신린아)를 만난다. 희연은 소녀를 집으로 데려오지만, 남편(박혁권)은 딸 준희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이 소녀를 수상하게 여긴다. 소녀가 찾아온 뒤 하나둘씩 실종되는 사람들 사라진 시어머니(허진)와 남편... 그리고 들려오는 ‘그것’의 목소리. 누군가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있다!

준 ★★☆☆(3.0) “가족.”  
 영 ★★☆☆(3.5) “치사하게 사람 감정가지고.”  
 경아 ★★☆☆(3.5) “엄마가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 귀신을 통해서라도 찾고 싶은 그리움.”



**04 12몽키즈** 2019. 9. 24.(화) 관람

서기 2035년 미래의 인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99%가 멸망하고 소수의 생존자들은 지상에서의 생활을 포기한 채 지하 세계에서 생활하게 된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제임스 콜(James Cole: 브루스 윌리스 분)은 자원 임무를 띠고 지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자와 여러 동물들이 배회하는 것을 보며 '12 몽키즈'란 단체의 마크를 보게 된다. 탐사 업무를 끝내고 돌아온 제임스에게 일련의 과학자들은 그에게 인류의 지상 회복을 도와준다면 완전 사면을 해주겠다고 제의한다. 결국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1996년으로 보내진다.

준 ★★☆☆(2.5)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근데 저 여자 왜 울어요?”  
 경아 ★★☆☆(3.5) “미쳤거나, 시간여행자거나.”

**05 에이리언:커버넌트** 2019. 9. 25.(수) 관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식민지 개척 의무를 가지고 목적지로 향하던 ‘커버넌트’ 호는 미지의 행성으로부터 온 신호를 감지하고 그곳을 탐사하기로 결정한다. 희망을 가진 신세계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그곳은 갈수록 어둡고 위험한 세계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밝혀지며 그들은 목숨을 건 최후의 탈출을 시도해야만 하는데.....

준 ★★★★★(4.5) “재밌다. 결말이 좋았다.”  
 영 ★★☆☆(3.5) “인류멸망의 첫 걸음”



**06 프로메테우스** 2019. 9. 27.(금) 관람

인류의 기원을 찾는 태초로의 탐사 여행!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뒤엎을 가공할 진실을 목격한다!  
 2085년. 인간이 외계인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한 생명체라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 탐사대가 꾸려진다. 우주선 ‘프로메테우스호’를 타고 외계 행성에 도착한 이들은 곧 미지의 생명체와 맞닥뜨리게 되고, 이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공포가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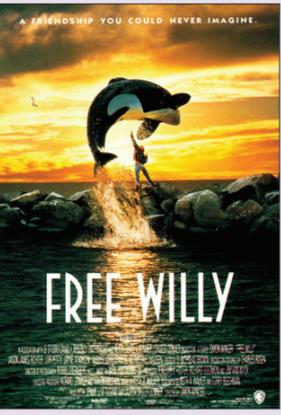
준 ★★★★★(4.5) “에이리언은 강하다.”  
 영 ★★☆☆(3.5) “에이리언 프리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07 프리윌리** 2019. 10. 30.(수) 관람

7000 파운드가 넘는 고래 윌리는 이 수족관의 어떤 조련사의 말도 듣지 않고, 고래쇼에 나가서 재주부리는 걸 거부하는 등 수족관에서 가장 큰 골치덩어리인 고래였다. 제시는 이 거대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윌리에게 큰 흥미를 느낀다. 제시의 계속되는 사랑에, 윌리 또한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었던 신뢰를 제시에게 보이고, 둘은 비록 동물과 사람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때려야 떨 수 없는 애정을 서로에게 느끼게 된다. 제시가 기대하지 못한 동물 조련사 레린들리(로리 페티 분)와 잡역부 랜돌프 존슨(어거스트 슬러버그 분)를 친구로 사귀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나 공원의 악명 높고 비사교적인 거주자 윌리와 친구가 되리라고는. 제시가 윌리와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윌리에게서 믿음과 우정을 얻게 되면서, 그리고 그 웅장한 고래가 지느러미를 돌려 구르고 다이빙을 하고 도약을 하는 등의 감탄할 만한 행동의 연속으로 답하면서 상호 신뢰와 애정의 유대감이 두 부족원자 사이에 서서히 발전한다.

준 ★★★★★(4.5) “재밌다. 결말이 좋았다.”  
 영 ★★☆☆(3.5) “인류멸망의 첫 걸음”



현장스케치

## 이룸학교의 동아리 이야기

이룸학교 길잡이 교사들에게겐 오랜 소망이 있었다.

바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도 항상 흐지부지 됐던 동아리 운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2학기에는 금요일 수업을 싹 비워 '동아리 및 자율활동의 날'을 만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고, 어쩌다 만들어진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비워진 금요일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던 두 개의 동아리 이야기를 소개한다.

### 벽화동아리

올해 2학기 준비기간에 강남소방서와 안전교육을 진행했던 인연으로, 소방서 안전교육실 비상대피로 벽면에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술활동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을 눈여겨보았던 소방서 선생님의 제안이었다.

학교에 오는 게 좋은데 뭘 할지 모르는 사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하면 뭐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가지각색의 이유들을 갖고 벽화동아리 멤버가 꾸려졌다.

#### 우리의 미션은

소방서 벽면에 지진, 화재로 인해 긴급하게 대피하는 모습들, 위험한 상황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불 끄고 연기 피워서 대피하는 곳이라 망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부담 없이 그려도 된다는 소방관님의 말에 우리는 각자 벽 하나씩을 맡아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 매주 금요일,

우리는 바리바리 재료를 싸들고 소방서로 향했고, 금요일뿐만 아니라 소방서 안전교육관에 수업이 없는 날, 그리고 이룸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마다 가서 작업을 했다.



전시회장 메인에 걸어 둘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된 느낌이었다. 말없이 그림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선명하게 색을 채우다 보면 머릿속에 가득 차있던 고민이나 걱정도 싹 잊혀지기도 했고,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노닥거린 덕분에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하고 싶어서 모이고,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니 마법 같은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마성의 벽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학기 말 발표회 준비로 너무 분주해 잠시 멈춘 상태이다.) 모든 벽면을 완성하고 멋쟁이 작가들이 구석 한 칸에 멋지게 사인을 남길 그날이 기다려진다!



**미니밴드 “악기하는 벌레들”**

두 번째 소개할 동아리는 미니밴드 동아리이다.

이룸학교 공동체 수업으로 진행된 밴드 수업을 통해 악기 연주에 흥미를 갖게 된 우리들은 11월 23일에 열리는 드림센터 축제에 공연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동아리로 뭉치게 되었다.

밴드 이름을 지어보자 했더니 ‘현수뱀과 꼬봉들’을 하겠다.

다시 착한 말로 바꿔서 다시 지어보자고 하니 아이들은 ‘악기하는 벌레들’을 내밀었다. 벌레는 별로 아니냐는 선생님의 말에 ‘벌레가 얼마나 이로운 곤충인데요!!!’라며 발끈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하하)

서로 챙겨주고, 더 멋지게 해내기 위해 애쓰면서도 즐기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였다.

영어 발음이 어려워 해매면 발음을 알려주는 친구, 화음을 암만 맞춰도 결국은 같은 음을 부르는 친구, 기본기를 마스터 했으니 기교를 곳곳에 넣어보겠다고 욕심을 내는 친구, 처음에는 자신 없이 작게 부르다가 결국은 노래에 심취해 신나게 질러버리는 친구, 곡 중간에 민망하지 않게 멘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 정말 예쁜 그림들을 만들어 갔다.

맨날 혼자서만 지내던 애들이 이런 화합을 보여준다니.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공연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했다.

11월 23일 토요일 드림축제 날, ‘Last Christmas’ 로 겨울분위기를 한껏 만들었다가 축제의 흥을 잔뜩 투척하는 ‘여행을 떠나요’ 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똑딱똑딱 내가 하는 움직임, 내가 내는 소리, 내가 하는 호흡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어우러져 하나를 만들어내는 재미와 뿌듯함이 어마어마했다. 긴장되는 순간을 즐기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공연 대기실에서



**우리들의 골든 메모리즈**

**2019 교육팀 AWARDS** 제 1회

다사다난했던 2019년 드림센터 교육팀!! 1년을 돌아보는 지금 좋았던일, 누군가에게 창피하지만 누군가에게 추억 가득했던 일이 있었을 텐데요! 교육팀의 꿈에 이룸학교, 점프업 학생들, 선생님들은 어떤 추억들을 쌓았을까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2019년 최고의 학생들! 각 부문 후보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제 1회 교육팀 Awards!!



**그 대망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Good**

**그 텐션 워상**  
원희

**원희는용~♥**

지루한 수업시간 갑자기 들려오는 웃음소리. 지친 친구들을 위한 그의 원맨쇼. 가끔은 과하지만 지친 친구들을 위한 활력충전소!

**나도 그손 주상**  
희람

**신이 내린 금손에 감각까지?**

드림센터 인근 카페 홀더부터 드림발표회 홍보물까지 그녀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결과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너만 보면 웃상**  
요한

**그녀가 교무실에 들어오면 들리는~**

오늘은 무슨빵이야?? 날로 발전하는 제과제빵 기술에 쌤들은 행복

**Better**

**이제 그만 하상**  
민관

**교육팀 선생님들의 백옥같은 피부에 주름을 선물한 바로 그 주인공!!!!**

담당 선생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 지분 100%야♥ 왜냐면 까맣게 타 버렸거든이라고 외친다는...

**이제 그만 늦상**  
희진

**점점 늦어지는 그녀의 등교시간.**

‘시간 약속이 뭐죠?’ 한번 두 번 세다가 올 한해가 끝날수도 제발 그만 늦길 바라

**언제까지 주무상**  
성혁

**상반기 잠자기 최장자를 뛰어넘을 NEW FACE!!!**

상반기 잠자기 왕 꿈예학교 신민관군을 뛰어넘는 엄청난 청소년이 나타났다. 이룸학교 신입생 김성혁. 그를 깨우는 선생님들은 덕분에 득음을 했다는 후문이...



2019년 드림센터 교육팀의 진짜 주인공 학생들!  
 줄리는 눈을 비비며 학교에 오는 길도, 하기 싫은 수업에 들어가 있는 일도  
 좋은일, 그렇지 않은 일들이 공존했던 2019년.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다면 어떤 상을 줄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 봤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상을 주었을까요?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꿈에부분**

**오가상, 오토상**  
류하늘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 상을 수여한다.



**밥상**  
오윤택

다이어트를 하느라  
식단 조절을 계속  
했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 상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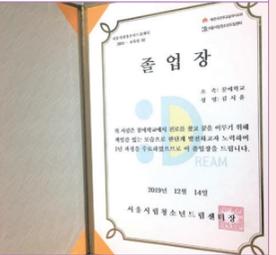
**참을상**  
이원희

화가 나고,  
학교에 가기 싫어도  
참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듣고 화를 잘 참은 나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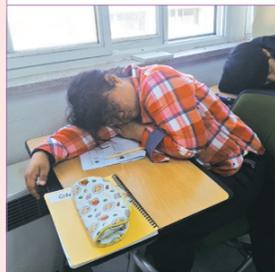
**무사히졸업상**  
김시윤

초, 중, 고 도합 12년.  
매일 매일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나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졸업이다.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나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즐려상**  
유진

자도 자도 졸린 나.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떠지지 않기도 했지만!  
즐려도 열심히 한 나에게  
이 상을 수여 한다.



**동영상**  
김민혁

김빰질, 김사정 등  
매일매일 놀림을 받던 나!  
드림발표회를 위해  
새벽 4시까지 동영상을  
만들며 성실함을 보여줬기에  
나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자천상**  
김소정

나는 맨날 재천쌌을  
웃게 해 줬으므로  
나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졸라이상**  
구희진

공주님을 꿈꾸는 나.  
다른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상을 수여한다.



**이름부분**

**새로운 도전상**  
오예원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왔던  
거구나!'를 깨달았다.  
변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자!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나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수고했상**  
정희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번 학기 한 게 참 많다!  
그런 나에게 수고했상을  
수여한다.



**나빠고 특식 먹지 마상**  
조규훈

매번 제가 없을 때만  
특식을 먹었어요.  
저는 억울해요.  
왜 제가 없을 때마다  
특식 먹었나요?  
내년에는 내가 있을 때  
특식을 먹길 기대하며  
이 상을 수여한다.



**참 열심히 했상**  
전승빈

열심히 한 해를  
보냈으니까  
이 상을 수여한다.



**성공적 독립상**  
이훈

고졸과정을 끝내자마자  
면접3단계를 한 번에  
통과하여 직장도 구했고,  
영화사라는 힘든 곳에서  
잘 버티고,  
자취하며 혼자서 버텨가는  
나를 칭찬하고 싶어서  
이 상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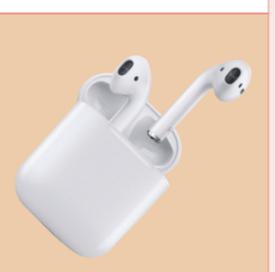
**대입 준비하느라 수고했상**  
이준석

이름학교에서 열심히  
놀이 배우다 대학입시의  
목표를 잡고 이것저것  
자격증도 따고, 시험도 보고  
별탈 없이 보내고 대학에  
입학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한다.



**에어팟 주는 상**  
이요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름학교의 울타리에서  
살짝 벗어나 사회생활을  
살짝 맛 본 나.  
잘했다! 그런 나에게  
지금 쓰는 이어폰은  
너무 불편하니까 에어팟을  
상으로 주고 싶어서  
이 상을 수여한다.



## 우리 애들! 학교에서 도 대체 뭐 하나요?

학교에 일단 보내기는 했는데  
수업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학부모님을 위한 코너



### 난 무조건 잔다! 수면파

"나에게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중요하지 않지.  
왜냐하면 난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  
부스스한 머리와 반쯤 감긴 눈으로 등교하여  
머리 닿는 곳이 나의 침실이 되는 학생들.  
교실, 나눔실에는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에 언제나 시골시골하더라...  
애들아, 잘 자는건 좋지만 밥은 먹고자자~



### 나는 언제나 노래를 부르곤 해

#### 코노파

○○이 어디갔어~~~.  
선생님의 물음에 한결같은 대답이 들려온다고 한다.  
"코노 갔을걸요?"  
10분의 쉬는시간에도, 밥 먹고 난 후 30분도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푸는  
꿈에·이룸학교 학생들.  
선착순 2명의 높은 경쟁률이 있으니  
조금만 늦어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발생 한다는데.  
전략을 세워 친구와 함께 간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참고 하도록 해 보자



### Dream Cafe



### 난 한놈만 판다 카페파

드림센터 안에는 드림카페가 항상 성업이러는데.  
청소년 할인을 받으면 1000원~2000원  
내외로 스무디까지 먹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주 들린다고한다.  
천원, 이천원 계속 사용하다보면  
지갑이 얇아 질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 소비해야 할 것!

###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철인 3종 경기가 있다면,

### 나에겐 게임 3종 경기가 있지 게임파

드림센터 5층 놀이터에는  
코노 말고도 농구게임  
(진짜 농구공을 던져서 넣는),  
손 하키, 옛날오락기, 포켓볼 등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욱 재미있는 게임들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수업에 늦어 혼나는 경우도 비일비재!  
드림카페 음료수가 걸리면  
선생님도 학생도 없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한번 도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19년 교육팀 학습발표회 & 졸업식  
**드림발표회 현장 속으로**

연말이면 당연한 듯 아닌 듯 찾아오는 드림발표회!

사실 2019년에는 드림센터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 진행한 드림축제로 대체 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역대급 자랑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던 2019년인 만큼  
 드림발표회를 빼놓기에는 아쉬웠던 교육팀 선생님들! 다시 또! 한번 일을 벌여보는데.  
 램프 속 지니가 울고 갈 어마어마한 능력자들과 함께하는 2019년 드림발표회 준비 현장 함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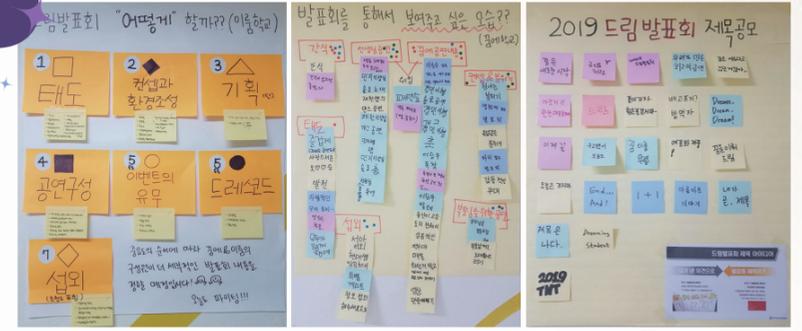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는 어떤 발표회를 만들고 싶을까?  
 발표회 이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발표회 컨셉과 이름은  
 우리가 정한다.



**이름·꿈에 모임 및 전체 회의**

교육팀 드림발표회 컨셉과 이름 정하기 시간은 학생들의 관심사, 이슈를  
 알아보기 딱 좋은 소스.  
 '처음처럼'부터 '까짓거 쫓 한번 해보는거야'까지 다양한 드림발표회 이름 투표.  
 꿈에 이름 학생부터 센터 선생님들까지 약 60명의 투표 끝에 정해진 이름은  
 "꿈을 이루어 DREAM"



**우리 발표회는 우리가 만든다-기획단**

꿈에 2명, 이름 8명 역대급 규모의 어벤져스급 기획단이 온다!  
 이번 발표회 홍보물부터 컨셉, 영상 촬영까지 착착착 역할을  
 분담해서 만들어 간 능력자들.  
 '꿈을 이루어 드림'이라는 발표회 이름처럼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한 발표회 컨셉은 알라딘~  
 기획단 친구들의 알라딘 분장 의견도 나왔던데 그 이야기는  
 정말 실현이 되었을까? 결과는 to be continued~



**이제 진짜 시작이다! 리허설**

학교도, 공연 당일 날에도 벌써 몇 번이나 했었지만  
 진짜 무대에, 조명에, 드라이아이스까지 환경이 마련되니 더욱 떨  
 리는 리허설 현장. 두 번은 없다고 하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소절 한소절. 잊은 것은 없는지 점검하  
 는 프로 같은 모습에 씬눈은 하트 뿜뿜



드림발표회  
현장스케치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게 매운 불닭볶음밥, 단짠의 정석 불고기 덮밥으로 먼저 든든히 속을 채우고 리허설도 끝나고 드디어 1시. 모두가 꿈을 이루는 시간! 드림발표회 시작 합니다



1부

1부 '꿈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름으로 DJ 썩쌔과 함께 라디오부스의 컨셉으로, 드림센터 교육팀의 서타~일대로 슬프지만은 않은 우리들의 졸업식으로 진행 되었다. 꿈에학교 윤택, 시윤이가 참여한 토크콘서트 택시를 시작으로 탭댄스, 노래, 에세이발표 등 이룸·꿈에학교 졸업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성격을 알 수 있었던 졸업식! 지난 시간 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꽃다발을 전달한 학생까지. 아쉽지만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졸업식이 아니었을까?



쉬는시간에는 막간을 이용한 교육팀 공식 팔씨름 왕 이룸학교 조규훈과의 팔씨름 대결이 펼쳐졌는데! 왕좌의 타이틀을 놓치지 싶은 규훈이와 쟁취하기 위한 다른 학생들과의 대결! 그는 왕좌를 지킬수 있었을까??



2부

2부는 '꿈을 이뤄드림'은 12개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난타부터 밴드, 패션쇼, 콘트라베이스 까지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진행 되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감 가득한 모습이었던 꿈에-이룸 학생들! 무대에 오른 후에는 언제 긴장 했냐는 듯 멋지게 공연을 이어 나갔는데. 졸업식이라는 엄숙한 분위기와는 달리 1년간 준비한 학생들의 공연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감탄사를 절로 내는 관객들! 숨막히는 공연 현장을 말이 필요 없는 꿈에-이룸 학생들의 숨막히는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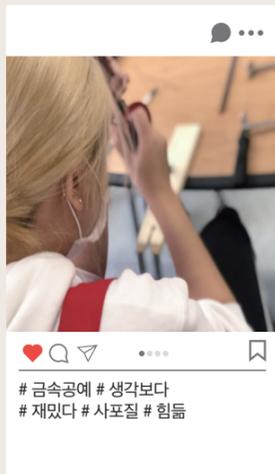
학생들의 멋진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소개되는 마지막 특별무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교육팀 선생님들의 깜짝 무대로 참석해주신 학생들, 부모님, 선생님들이 다같이 놀라워하며 감동의 무대가 마무리 되었다.



015B-이젠 안녕의 감동적인 가사와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창력으로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있었던 것은 안 비밀~!^^ 언제나처럼 2019년 드림센터 교육팀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과의 모두와의 즐거운 사진 촬영 후 우리의 2019년은 마무리 되었다.

## 우리들의 골든 메모리즈

지난 2학기를 찬찬히 되짚어보면 교육팀 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마도 내 기준에서 너무나 좋았던 기억만 크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황금 같은 기억들이 남아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고깔 쓰고 # 코끼리코 돌고  
# 생각보다 # 신난다 # 최고기록  
# 9.9초 # 오늘의 자원봉사  
# 꿈에 보컬팀



# 꿈에학교 # 난타반 # 블랙간지  
# 조금 틀림 # 긴장해도  
# 티 안나게 # 나니까



# 이룸학교 # 밴드 # 악기하는벌레들  
# 여행을떠나요 # 프로로 가는길  
# 힘드네 # 우리 좀 함 # 공연섬의  
# 문의 환영



# 개프 # 일지작성 # 귀찮  
# 집가고 싶다 # 하...



# 만화방 # 음료수 # 최고의 조합  
# 행복 # 고민 # 가을 독서 # ㅋㅋㅋ



# 이제진짜 # 졸업이네 # 고생했다  
# 고딩안녕 # 대학생



# 꿈에는 # 등산 # 청계산 등반  
# 전문가 # 우리는 # 막내라인



# 연탄봉사 # 마들렌 # 맛있게  
# 드셨으면 # 제과 전문가 # 맛있음



# 댕댕아 # 안녕 # 등직한  
# 군견 # 반가워



# 그래 # 우리는 # 고딩  
# 매력있는 # 옛날교복  
# 발표회 # 많이 보러 # 오세요



# 미술관 # 멋진 나 # 아무생각 없음  
# 그림 잘그리네 # 언제 끝나



# 방학에도 # 진행되는 # 벽화그리기  
# 힘들어도 # 좋다 # 언제 끝나



# 캠프 # 밤은 # 불꽃놀이  
# 1년 # 마무리 # 진짜 안녕  
# 지금 # LOVE 만드는 중  
# 결국 한번도 # 못 만듦



# 겨울엔 찜질방 # 찜질방은 양머리  
# 더워 # 당연한 소리  
# 미녀선생님들 # 미녀학생



# 물놀이는 # 겨울이지  
# 얼굴은 시원 # 몸은 따뜻  
# 수영장물 # 내가 다 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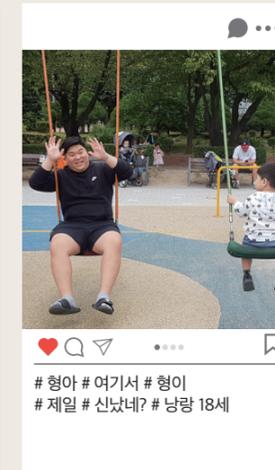


# 꿈에도 # 제주도  
# 응 아니야 # 현실은 # 춘천

🏠 교육팀 학생들의 동심 찾기 🧸



# 농구관람 # 너가 왜 거기에 있어?  
# 직원인줄 # 언제 내려갔지  
# 춤추는건 # 아니지?



# 형아 # 여기서 # 형이  
# 제일 # 신났네? # 낭랑 1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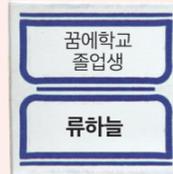


# 시선강탈 # 표정 # 왠지 끌리는 시  
# 소타기 # 진짜 시강은 # 저 뒤  
# 잘못하면 # 못나올텐데 # 3세용  
# 자동차 # 25kg 미만 탑승금지



# 카리스마 시선 # 흑시  
# 떨어질까 # 꽉 잡은 # 저 손  
# 무서운건 # 아니지?

2019년을 마지막으로 12년의 학창시절을 마무리 하는  
꿈에학교 학생의 수기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저의 생각으로 글을 시작할까 합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이유

- 1 서로 헤어진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른다.**  
지난 일이라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분명 신경 쓰인다. 내가 몰랐던 일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듣고 싶지 않은 답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고 그걸 토대로 혼자 상상한다. 실제 있지도 않은 일과 앞으로 있지 않을 일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한다.
- 2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추억한다.**  
뭘 먹지, 어딜 가지, 뭘 하지가 아니라 뭘 먹었는지, 어딜 갔었지, 뭘 했지가 되어 버린다.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대화를 한다. 발전 없는 노력을 하게 된다.
- 3 배려가 독이 된다.**  
서로 지나치게 조심하게 된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화가 나도 참게 된다. 말을 아끼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게 된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지만 자기도 모른 사이에 포기하고 있는 거다.
- 4 안 싸우면 안 헤어질 줄 안다.**  
사실 싸움은 헤어짐의 표면적 이유일 뿐이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으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일반 제도권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고, 또 무엇보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성적을 중심으로 학교가 움직이고, 학생들을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에 계속 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별점이 쌓이는 소소한 행동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별점이 누적되면서 학교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슬프고 막막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학교라는 위탁형 대안 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를 것 같은 학생들과 다른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맞는 선택인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안 학교생활! 이제 1년 반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런 면에서 더 다양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던 자신감도 생기고 의사 표현의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서 대학 생활을 해 보고 싶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대안 학교 선택에 대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없다. 이 곳에서 저의 강점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시작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고, 시간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기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도움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www.dreamcenter.or.kr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